

상장사 · 중소기업의 투명회계·적법세금·성공경영 정보 —



#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 공인회계사 조세 eAnSe.com

온라인 30분내 Q&A 문서답변과 방송



중기업  
경영관리  
외주화

2023/ 11/ 8 통권 1648호

CEO·CFO·COO·회계책임자·조세전문가·재경실무자·총무담당자·모든 관리자용 **名品** 주간지

### CEO 에세이 - 이해의원장

문화(文化) vs 무화(武化)

2천만 근로자의 연말정산,  
미리 준비하세요

### CFO·회계실무자·조세전문가 정보

- 신주발행에 따른 회계처리 방법
- 2천만 근로자의 연말정산, 미리 준비하세요
- 서민의 위기를 기회 삼는 민생침해 탈세 중단

### ·CMO·마케팅 Tax consulting 선택

- 콘도건물 신축하여 투자세액공제 적용받은 후  
공유제방식으로 분양해도 감면세액 추정 안됨

(p.13)

### 전직원 회람 공지 MEMO+경영관리자의 재무의사결정과 稅計經營戰略

#### <동업기업의 개념과 동업자간 주의점 및 세금 문제>

개념, 구분	해당 내용, 세무상 쟁점 관련 규정
동업의 개념	다수인이 금전 · 재산 및 노무 등을 각각 출자해 공동사업경영하는 행위(조특법 제100조의14)
동업 주의점	① 신뢰가 제일 중요 ② 동업계약서 작성(지분의 양도제한이나 주주간 우선매수권 약정 기재 가능) ③ 동업출자내용 분명 ④ 각자 역할·이익·손실 분배방법 ⑤ 금전거래의 투명화 ⑥ 의결방법 결정 ⑦ 해지·정산방법
지속가능 요인	동업자 간에 서로 다른 특성, 재능, 원천이 서로 다르거나 다양하면 지속가능성 높고, 호황시 지속
깨지는 이유 (주요사례)	동업자들의 기술, 제조법, 영업, 관리, 자본력 등이 서로 대등하면 분쟁요인 발생 가능성 높음. 호황보다는 불황시 잘 깨짐
상대방 인수 (우선매수조건)	동업주주간 계약서에 지분의 양도제한이나, 우선매수권리 · 의무 조항을 기재하여 사업의 계속성 유지함
제3자 인수 (분쟁요인)	상대방(간존주주)이 매도주주의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매도주주 등 소수지분자는 제3자에게 임의의 매각이 가능함
과점주주취득세	동업회사(법인, 개인 등)의 과점주주(50% 초과) 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동업회사 소유부동산 등 × 취득세율 × 변경지분비율의 취득세 납부(지방세법 제7조, 시행령 제11조)
지분양도세	동업주주지분이나 지분의 양도차익(= 양도가 - 취득원가) × 10%(중소기업), 20%(일반기업), 30%(대주주 1년 미만 보유주식)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함
제2차 납세의무	동업이 청산되고 과점출자주주가 된 경우, 해당 법인의 세금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부담(국세기본법 제39조)

(안세회계법인 대표이사 박은종공인회계사작성)

안세회계법인  
02-829-7557

회계·경리·세무·재무·인사·노무·총무·법무·기획·재경(AnSe consulting)  
경영관리 · 총무 outsourcing + secretarial 서비스 + 중소기업창업·보육·지원센터

안전조세정보  
02-829-7575

# 주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통권 1648호 / 주간 45호

2023. 11. 8. (수)

·발 행 인:이윤선  
·제 작:(주)안건조세정보  
·대표전화:(02) 829-7575  
FAX:(02) 718-8565

## 목 차

### ♣ 회원가입 문의 안내

- 서울·수도권·경기·인천  
전화 : 02) 829 - 7575  
팩스 : 02) 718 - 8565
- 부산·경남  
전화 : 051) 642 - 3988  
팩스 : 051) 642 - 3989
- 대구·경북  
전화 : 053) 654 - 9761  
팩스 : 053) 627 - 1630
- 대전·충청  
전화 : 010) 3409 - 2427  
팩스 : 042) 526 - 1686
- 수원·안산  
전화 : 010) 5255 - 6116

- ♣ 매월 구독·자문료 5만원  
온라인 입금계좌  
· 우리은행  
594 - 198993 - 13 - 001

정회원(주간+월간 등)  
월 구독료  
5만원

### eAnSe.com의 차별화특장

- ① 오늘 30분내 Q&A 전송
- ② 핵심내용 영문번역
- ③ 재경전반 동영상강의
- ④ 즉답(010-2672-2250)
- ⑤ 온라인 세무상담실
- ⑥ 모든 정보 통합검색
- ⑦ 마케팅 세무회계전략
- ⑧ CEO·CFO 경영에세이
- ⑨ 전담회계사 파견자문
- ⑩ 세무·회계·재경고문
- ⑪ 최고경영자의 세금전략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최고경영자 재경전략	동업기업의 개념과 동업자 간 주의점 및 세금 문제	표지
C E O 에 세 이	문화(文化) vs 무화(武化)	4
세무·회계상담자문 (남들은 무슨 고민할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계사 직원에게 상품권 지급 시 고려 사항</li> <li>- 해외 타처 보관시 고려 사항</li> <li>- 직원 출장 시 경비(숙박비, 소액경비, 교통비)에 대한 비용인정 문의</li> <li>- 무형 라이선스에 대한 감가상각 질의</li> </ul>	4 5
눈에맞는 절세미인	신주발행에 따른 회계처리 방법	6
매일 절세재무요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올해 연말정산 달라지는 것들</li> <li>-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의 변천사</li> </ul>	8 9
직장인 Survival	철저한 계획으로 목표를 향해 매진하라	10
최 신 판 례 예 규 (이런저런 유권해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신탁회사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사 명의로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신탁사 명의로 신축된 건축물 등에 대해 위탁자 겸 수익자가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사전법규법인-832, 2023.03.08)</li> <li>- 일본 거주자인 개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한·일 조세조약」제10조 제2항 나목의 제한세율을 초과할 수 없음 (서면국제세원-3197, 2022.12.14)</li> </ul>	11 12
세 정 뉴 스 와 해 설	오늘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간소화자료 서비스...신용카드 혜택 '쏟아'	13
마 케 팅 Tax consulting	콘도건물 신축하여 투자세액공제 적용받은 후 공유제방식으로 분양해도 감면세액 추정 안됨	13
세 무 정 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천만 근로자의 연말정산, 미리 준비하세요.</li> <li>- 서민의 위기를 기회 삼는 민생침해 탈세 업단</li> </ul>	14 36
세 무 환 율 정 보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 환율	3

# 문화(文化) vs 무화(武化)



이해익 원장 : 리즈경영컨설팅 대표컨설턴트·CEO칼럼니스트

- 한국CEO연구 포럼 연구위원장, 머니투데이에 CEO 에세이 연재
- (전)진로그룹 이사·캠브리지총괄전무, 한국능률협회 교수요원
-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기업평가위원장으로 활동
- (겸임)한국팔기외고문, 한국표준협회 경영고문, 최고경영자 과정 출강
- 서울상대졸업 011-241-8558, haeikrhee@hotmail.com

문화(文化)의 반대어쯤으로 야만(野蠻)이 있다. 역사서에 따르면 잔인스런 살육과 인권유린이 그럴싸한 명분으로 자행돼 왔다. 바로 전쟁이고 야만이다. 야만은 “미개하여 문화 수준이 낮은 상태, 또는 그런 종족”이라고 사전류에 정리되어 있다. 그렇다면 개명천지가 되었다는 근·현대에는 야만이 없나? 물론 아니다. 세계1차, 2차 대전이 대표적 야만이다.

문화의 대칭어로는 또 무화(武化)가 있다. 무력화(武力化), 무기화(武器化), 무장화(武裝化)의 준말 정도로 이해해도 무방하다. 인류는 끊임없이 무화를 강화해 왔다. 그리고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탐욕을 위해 무력을 사용하면서 야만을 행해 왔다. 원시시대 돌도끼는 짐승을 잡아먹는데 유용했을 것이다. 또 다른 종족의 침략을 막는데도 쓰였을 것이다. 드디어 살인에도 사용했을 것이다. 이제 인류는 스스로를 몇 십번 몰살시키고도 남은 핵무기를 손에 쥐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결코 먼 나라 얘기가 아니다. 과거에는 소련과 미국이 바로 한반도에서 으르렁 거렸고 지금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대치하고 있다. 바로 모두 핵을 소유한 무화(武化)국가들이다.

과학과 기술이 급속히 발달했다. 그만큼 무력화도 급격히 발달했다. 유럽 열강은 신항로 발견 이후 대륙의 곳곳을 침탈했다. 피의 제국주의시대였다. 원자재를 싼 값에 약탈하고 상품시장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해적이 따로 없었다. 식민지를 더 많이 쟁취하기 위해 그들끼리 피나는 전쟁도 불사했다. 최초로 동남아시아에 진출한 나라는 포르투갈과 스페인이었다. 그 후 네델란드가 등장하고 영국이 나타났다. 프랑스 역시 질세라 나섰다. 그래서 한 때 영연방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다. 독일도 빠질 수 없었다. 타이완과 한국 그리고 중국의 일부는 일본의 식민지가 됐다. 러시아도 우즈베키스탄과 몽골의 북부를 차지했다. 필리핀은 스페인, 일본, 미국이 차례로 지배했다. 더 많은 식민지를 얻기 위해 세계 1차대전을 일으켰다. 또 히틀러는 이태리의 무솔리니와 일본의 도조 히데키와 함께 세계 2차대전을 일으켰다. 나치는 유대인을 가스실에서 대량 학살하고 일본은 조선인을 생태실험의 도구로 삼았다. 비뚤어진 무화(武化)를 통해 인간을 비극으

로 몰아붙였다.

기업도 왕왕 착취와 인권 유린을 자행하고 있다.

‘121년 코카콜라의 탐욕·거짓을 벗기다’는 탐사전문 저널리스트인 윌리엄 레이몽의 저서다. 저자는 초창기 코카콜라의 성공이 마약인 코카인 성분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들춰냈다. 특히 2차 세계대전 중에는 나치 지원도 서슴치 않았던 행태도 고발했다. 세계최대 스포츠용품 업체인 미국의 나이키는 노동착취 등 일부 문제가 있음을 시인한 바 있다. ‘세계인의 축제’라는 월드컵. 그 이면에는 하루 14시간을 꼬박 어두운 조명아래에서 축구공을 깎고도 17센트(한화 300원)밖에 못받는 어린이가 있었다.

한국의 어떤 자동차회사는 늘 노사분쟁으로 얼룩져 있다. 전쟁과 야만이 설친다. 한국의 대기업들은 찍하면 ‘공격적 경영’이니 한다. 공격해서 누구를 무찌르고 죽이자는 것인가. 경쟁사와는 선의의 경쟁을 하고 약자인 중소기업 협력회사들을 보듬어 안는 세심한 배려가 절실하다. 만연한 군사문화를 극복해야겠다.

####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통 화 명				10월 27일 (금)	10월 30일 (월)	10월 31일 (화)	11월 1일 (수)	11월 2일 (목)
미	달	러	(USD)	1357.10	1352.30	1352.80	1349.60	1356.90
일	본	엔	(JPY)	902.42	903.43	907.04	892.39	900.64
영	국	파	운 드	(GBP)	1646.84	1638.11	1645.82	1640.10
캐	나	다	달 러	(CAD)	981.91	974.98	978.52	973.04
홍	콩	달	러	(HKD)	173.53	172.89	172.98	172.50
중	국	원	(CNH)	185.18	184.42	184.51	184.29	185.02
유	로	화	(EUR)	1433.50	1428.16	1435.86	1427.88	1435.46
호	주	달	러	(AUD)	858.64	856.88	861.60	855.65
싱	가	폴	달 러	(SGD)	991.20	986.86	991.17	985.65
말	레	이	시 아 링 기 트	(MYR)	283.54	283.00	284.05	283.26
							283.26	284.41

## 관계사 직원에게 상품권 지급 시 고려 사항

**Q** 관계사 (Veoneer China) 직원 (중국인) 에게 compensation 명목으로 상품권 200만원을 지급하려고 할 때, 원천세 등 tax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계정은 접대비로 처리 할 예정입니다.

**A** 접대비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전표)만 있으면 세무상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귀사의 경우도 해당 상품권을 법인카드로 구입하고 접대비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특별한 세무상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 해외 타처 보관시 고려 사항

**Q** 고객의 요구에 즉시 대응하기 위하여, 해외에 있는 관계회사(판매 법인)에 판매용 기계를 보관하고, 현지에서 기계가 판매될 때 매출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습니다. 판매용 기계가 현지에 있다 하더라도 고객이 확보되지 않으면 장기간 보관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1. 해외 타처 보관시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되는지요? 판매시에 인식하면 되는지요?
2. 해외 타처 보관에 대한 법적 제한이나 보관 기간에 대한 제한이 있을런지요?

**A** 1. 국내에서 제작 또는 구입한 기계를 해외에 보관하는 경우라면 국내에서 국외로 무상반출하는 경우라도 수출에 해당되어 영세율적용 신고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구입하여 보관한다고 판매시는 판매시점에 매출인식하면서 부가가치세 영세율신고반영하면 됩니다.

2. 해외 보관에 대한 법적제한이나 기간등은 세법에는 특별한 제한이나 규정은 없으나, 타법에 그러한 규정이 있는지는 저희도 알 수 없습니다.

## 직원 출장 시 경비(숙박비, 소액경비, 교통비)에 대한 비용인정 문의

**Q** 회사에서는 직원이 출장을 갈 경우 숙박비와 소액경비,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숙박비는 영수증을 첨부한 실비정산(한도있음), 소액경비와 교통비는 정액으로 지급(영수증 미첨부)하고 있습니다.

세법상 직원의 출장비 등과 관련된 경비 지급시에는 사회통념상 허용하는 범위에서 지급하되 증빙을 징구하는 것이 원칙이고, 내부통제 등의 이유 등으로 증빙없이 통념적으로 허용되는 범위내에서는 비용인정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Q. 출장과 관련된 비용을 직원에게 지급 시 영수증 등의 증빙을 징구하지 않고 정액으로 지급해도 상관이 없나요?(사회통념상에서 허용되는 수준이라면)

Q. 증빙을 징구하지 않고 경비(숙박비, 소액경비, 교통비)를 지급할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통념상 범위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Q. 직원의 출장명목의 비용집행 시 증빙을 징구하지 않고 경비를 지급할 경우 증빙불비 등의 가산세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나요?

A

1. 회사내 출장비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출장비는 출장목적·출장지·출장기간 등을 감안하여 실시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내에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 규정의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비과세)로 인정됩니다.
2. 사회통념상 범위는 구체적 기준이 없으며 회사가 자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합니다.
3. 실비변상급여로 처리하는 경우 증빙이 없어도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무형 라이선스에 대한 감가상각 질의

Q

자사는 현재 개발을 위하여 무형의 라이선스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 3년이상 사용 - 500만원 이상 -소유권은 공급자한테 있음

- 처음 구입 하고 기간에 따라 업그레이드나 유지보수 비용이 기간 마다 발생 하지만 이를 지불하면 영구적으로 사용 가능 (EX: 구입비 : 2천만원 , 유지보수 비 2년에 300만원)

위의 경우에 무형의 라이선스에 대하여 처음 구입비는 자산을 잡고 감가상각을 해도 되나요? 아니면 모두 기간에 대한 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소유권의 여부가 기준이 되는건지 아니면 사용 기간과 금액이 클 경우 상각해도 되는 지 궁금합니다.

A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려면 식별가능하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으며,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되는데, 통상 소유권이 없으면 귀사가 통제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 신주발행에 따른 회계처리 방법

상담실 백종훈 차장

일반적으로 주식은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지만, 기업이 설립된 이후라도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등의 필요에 따라서 주식을 발행하기도 한다. 신주는 현금발행, 청약에 의한 발행, 현물출자 등의 방법으로 발행되는데 각각의 발행방법에 대한 회계처리를 살펴보기로 한다.

## 주식의 현금발행

주식의 액면 가액은 기업의 법정자본금을 의미할뿐이지 주식의 시장가격이나 주주가 실제 불입하는 금액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액면 가액으로만 주식을 발행하는 것은 아니고 액면 가액을 초과하여 할증발행 할 수도 있고 액면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할인발행 할 수도 있다.

주식을 액면 가액으로 발행하게 되면 발행금액 전액을 자본금계정으로 기록하면 되며, 액면 가액 이상으로 할증 발행한 경우 액면 가액만큼은 자본금계정으로 반영하고 초과액은 주식발행초과금 계정으로 처리하면 된다.

하지만 주식을 액면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할인 발행한 경우 액면가와 발행가와의 차액은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반영하면 된다.

### ▶ 액면발행(액면가 500원 보통주식 1,000주 발행)의 회계처리

차) 현금	50,000	대) 자본금	50,000
-------	--------	--------	--------

### ▶ 할증발행(액면가 500원 보통주식 1,000주를 600원으로 할증발행)의 회계처리

차) 현금	60,000	대) 자본금	50,000
		주식발행초과금	10,000

### ▶ 할인발행(액면가 500원 보통주식 1,000주를 400원에 할인발행)의 회계처리

차) 현금	40,000	대) 자본금	50,000
주식할인발행차금	10,000		

## 현물출자

일반적으로 주식 발행시 그 대금을 현금으로 납입하지만 때때로 현금이외의 자산으로 납입하

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현물출자라고 한다.

현물출자에 있어서는 출자 받은 자산이 현금이 아니므로 출자 받은 현물과 주식의 평가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바, 현물출자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하여 회계 처리한다.

▶ 현물출자방법의 회계처리

차) 토지	60,000	대) 자본금	50,000
		주식발행초과금	10,000

## 청약에 의한 주식발행

청약에 의한 주식발행이란 주식 청약시에 계약금만 지급하고 잔액은 미래에 일정시점까지 지불할 것을 서명날인하고 청약가격이 완전히 납입된 후에 주식이 발행되는 것을 말한다.

주식청약과 관련하여 회사가 주식청약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신주청약증거금계정의 대변에 기록하고 주식대금잔액을 받으면 신주를 발행하고 신주발행에 관한 회계처리를 하면 된다

▶ 주식청약일의 회계처리

차) 현 금	100,000	대) 신주청약증거금	100,000
--------	---------	------------	---------

▶ 잔금납입일의 회계처리

차) 현 금	600,000	대) 자본금	500,000
신주청약증거금	100,000	주식발행초과금	100,000

## 신주발행비

신주발행비란 주식의 발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발생한 비용으로서 주주모집을 위한 광고비, 증권인쇄비, 증권회사수수료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러한 신주발행비는 주식의 발행가액에서 차감하여 회계처리하면 되는바, 주식이 할증 발행된 경우에는 주식발행초과금에서 차감하고 주식이 액면 발행이나 할인 발행된 경우에는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처리한다.

▶ 할증발행시 신주발행비의 회계처리

차) 주식발행초과금	1,000	대) 현 금	1,000
------------	-------	--------	-------

▶ 액면발행, 할인발행시 신주발행비의 회계처리

차) 주식할인발행차금	1,000	대) 현 금	1,000
-------------	-------	--------	-------



- 안건조세총서, 기업경영회계·세무, 법인세법상세해설서  
- 경제신문자료와 공공기관발표자료 등



### 올해 연말정산 달라지는 것들

공제 항목	변경 내용
기부금 세액공제	- 고향사랑기부금 기부액 10만원 이하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500만원 한도 내에서 15% 세액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하반기 지출 영화관람료, 문화비로 분류해 30% 공제 - 대중교통 사용분 80% 공제
연금계좌 · 교육비 · 월세액공제	- 연금계좌(퇴직연금 포함) 공제한도 700만 → 900만원 - 수능응시료 · 대학입학전형료 교육비에 포함, 15% 세액공제 - 월세 세액공제 주택 기준시가 3억 → 4억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감면한도 연간 150만 → 200만원



### 기회발전특구 혜택 확대하는 정부

보조금 확대	지방 이전 기업에 최대 200억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취득세 · 재산세 감면 대상 확대	특구에 공장 신증설하는 모든 기업에 적용
근로자 복지 마련	특구 내 공동직장어린이집 지원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의 변천사

구분	1989년 이전	1990년~1993년	...	2010년 이후	2014년 이후	2016년 이후
현금보상분	100%	50%	...	20%	15%	10%
채권보상분	100%	80%	...	25% (만기채권 3년 40%, 5년 50%)	20% (만기채권 3년 30%, 5년 40%)	15% (만기채권 3년 30%, 5년 40%)



## 올해 화제의 금융상품

회사	상품	특징
KB국민은행	바로보는 외화통장	환율 변동에 따른 실시간 수익률 확인
신한은행	푸바오×적금 챌린지	적금 미션 연동해 상품 제공
하나은행	수출은 하나론	수출 준비 기업까지 금융 혜택 제공
우리은행	WON플러스 예적금	까다롭지 않은 우대 조건으로 고금리 가능
NH농협은행	고향사랑예적금	고향사랑 기부제 연동해 우대금리 제공
IBK기업은행	IBK중기근로자우대중금채	중소기업 종사자에게 추가 금리
Sh수협은행	Sh어촌청년을 응원海적금	어촌청년·귀어인에 특별 혜택
삼성생명	다(多)모은 건강보험	필요한 보장만 선택해 '맞춤형'설계 가능
한화생명	한화생명 시그니처 암보험 3.0	최다 7번 부위별 암 진단자금 지급
교보생명	교보우리아이보험	100세까지 생애주기별 주요 위험 보장
신한라이프	홈닥터의료비보장보험	매년 주계약 보장금액 새롭게 충전
삼성화재	임산부·아기보험	당뇨·고혈압 등 질병 이력 있는 임산부도 가입
DB손보	요양실손보장보험	요양원과 방문요양 비용, 쓴 만큼 실손 보장
현대해상	6090Hero종합보험	수술·골절·치매 등 담보 추가로 일반 종합보험 수준 보장
메리츠화재	내Mom대로 보장보험	3대 질환 진단비 등 핵심 보험료 최대 15% 인하



## 철저한 계획으로 목표를 향해 매진하라

국내 유일의 안광학 의료기기 전문기업 휴비츠의 대표 김현수씨는 치밀한 계획으로 성공한 대표적인 인물이다. 학창시절부터 과학을 유난히 좋아했던 그는 대학에서는 물리학을 전공하고 대학원에서는 광학을 공부했다. 광학을 전공으로 선택한 이유는 당시 국내에 레이저가 막 들어오기 시작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흥미가 있어서였다.

박사학위를 딴 후 그는 러시아로 가서 대학 연구원으로 지내다가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와 어느 기업의 연구원으로 입사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신사업기획부에서 많은 경험을 쌓으며 사업부를 크게 키우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가졌지만 IMF로 인해 경제위기에 빠지면서 꿈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미 사업계획을 완벽하게 준비하고 있었던 그였기에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창업을 결심했다.

사업을 하던 중 가장 큰 위기는 첫 수출지인 미국에서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온 일이었다. 수입한 곳에서 기기실험을 한 결과 검안기가 부적합하다는 판정이 나왔던 것이다. 알고 보니 실험대상자가 특이 체질인 것으로 밝혀졌지만 그런 부분까지 미리 감안하지 못한 실수를 인정해야만 했다. 이 문제로 회사는 문을 닫아야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지만 그는 3개월간의 파나는 연구 끝에 해결방법을 찾아 안광학 의료기기 시장을 독식하고 있는 일본과 독일에 결코 뒤지지 않는 품질을 개발했다.

그가 위기의 순간에도 굴하지 않고 목표를 향해 매진할 수 있었던 것은 철저한 계획 덕분이었다. 계획이 완벽했기에 결코 실패하지 않으리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다. 계획이 치밀할수록 성공도 빠르다. 사람들은 흔히 어떤 일에 실패하면 능력이 부족하거나 운이 좋지 않아서라고 말한다. 하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재능이나 능력이 월등해서 부와 명성을 얻은 것 같지만 치밀하고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다면 결코 가능하지 않은 일이었다.

# 최신 판례예규

## Marketing Tax consulting

콘도건물 신축하여 투자세액공제 적용받은 후  
공유제방식으로 분양해도 감면세액 추정 안됨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신탁  
회사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  
사 명의로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신탁  
사 명의로 신축된 건축물 등에 대해 위탁  
자 겸 수익자가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  
을 수 있음

사전법규법인-832, 2023.03.08

### 질 의

- (질의 1)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영위하는 법인('질의  
법인')이 신탁회사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  
하고 토지 소유권 및 관광숙박업 사업권을 신탁회사  
에 이전한 후 신탁회사 명의로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 신탁회사 명의로 신축된 건축물 및 시설물에 대해  
질의법인('위탁자 겸 수익자')이 통합투자세액공  
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질의 2)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  
업용 유형자산인 건축물('콘도')을 공유제 계약에 따  
라 일반인에게 분양한 경우 투자자산의 처분으로 보  
아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회 신

1. 「관광진흥법」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영위  
하는 법인(위탁자 겸 수익자)이 신탁회사와 관리  
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사업을 영위  
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 제  
3항 제5호에 따른 사업용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4에 따라 통합투자세액공

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2. 「관광진흥법」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영위  
하는 법인이 사업용 자산(건축물)을 공유제 계  
약에 따라 분양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  
146조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  
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90,  
2010.02.09.)를 참고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90, 2010.02.09.

「관광진흥법」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영위하  
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건  
축물)에 투자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에 따  
른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해당 사업용자  
산을 「관광진흥법」에 따른 공유제 방식으로 분양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감면세액의 추  
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추가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납부  
와 지급명세서 제출을 이행하지 않고 소득자  
가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한 경우 원천  
징수의무자는 해당 세액에 대해 경정청구할  
수 없음

서면징세-3204, 2023.03.27

### 질 의

- 지자체와 소속 소방공무원들 사이의 수당 등 청구 소  
송 진행 중에 해당 지자체는 1심 판결의 취지에 따라  
수당 등을 추가 지급하였으나,
- 추가 지급분에 대해 원천징수 납부하지 않고 소속  
소방공무원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해당 지자체는  
해당 세액을 대납한 경우  
- (질의) 해당 지자체가 대납한 소속공무원들의 종합  
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로서 경정청구하여 환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Ⅰ 회 신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자의 종합소득 과세 표준 확정신고기한 이후 법원 판결에 따라 추가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거나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고 원천징수대상자가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한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5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정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일본 거주자인 개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나목의 제한세율을 초과할 수 없음**

서면국제세원-3197, 2022.12.14

## Ⅰ 질 의

- 질의법인은 일본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 동 주주에게 법인의 잉여금을 배당할 예정으로 배당소득 지급시 적용할 원천징수 세율에 대해 질의함

질의

- 내국법인의 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는 일본 거주자에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한·일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 적용방법

## Ⅰ 회 신

내국법인이 일본 거주자인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 배당소득을 지급할 경우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나목에 따라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납부하는 것입니다.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입주권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3조의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법규재산-247, 2023.04.27

## Ⅰ 질 의

- 2022.10.1. 피상속인 甲 사망
  -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지역주택조합원입주권을 소유 중
  - 이 외 별도 주택은 없으며, 동거주택상속공제의 다른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전제
- 상속인 乙은 지역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

질의

-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지역주택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고 있고 그 외 주택이 없는 경우, 상기 지역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3조의2에 따른 동거주택상속공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Ⅰ 회 신

「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같은 법에 따른 주택공급계약을 통하여 취득한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조합원입주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 오늘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간소화자료 서비스...신용카드 혜택 '쫄쫄'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31일 연말정산 미리보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개통한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는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과거 공제금액을 확인해 내년 연말정산 세액 계산 및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다.

맞벌이 부부인 경우 부양가족 공제, 부양가족의 교육비 기부금신용카드 등을 누가 공제받는 것이 더 유리한지 확인할 수 있다.

기부의사나 저축계획이 있는 경우 고향사랑기부금과 연금저축을 활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올해 개정된 고향사랑기부금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영화관람료도 공제 받을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 이하는 10%, 10만원 초과는 15%로 세액공제를 받으며 공제한도는 500만원이다.

신용카드 등 공제는 연봉 7000만원 이하의 공제한도가 기본 300만원, 추가 300만원으로 확대됐으며, 7000만원 초과는 기본 250만원, 추가 200만원 적용을 받는다.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이 두 배(80%)로 상향됐으며, 연봉 7000만원 이하에 한해 올해 7월 1일 이후 지출한 영화관람료는 문화비로 공제된다.

급여가 적은 근로자는 별 영향이 없지만, 고액연봉자는 감세혜택을 그대로 받게 된다.

노동조합비는 조합이 오는 11월 30일까지 회계공시를 한 경우만 공제 받을 수 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도 31일 개통한다.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를 자동 제공에 동의한 근로자의 경우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해 연말정산 자료를 받아 회사에 직접 제출할 필요가 없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경우 일정에 맞춰 회사는 근로자 명단등록, 근로자는 자료제공 동의를 진행하면 된다.

### 행안부, 지방보조금 불이익 2배 상향... 내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

행정안전부가 지방보조금 절감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지자체에 불이익을 기존의 2배를 주는 내용의 지방교부세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행정안전부는 31일 지방교부세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을 결정했다.

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재원이 부족한 지방정부에 내려주는 일종의 지원금이다. 지방정부 중 상당수는 지역 경제상황이 열악해 중앙정부 교부세 없이 운영할 수 없다.

보통교부세 총액은 법령에 따라 내국세의 19.24% 중 97%, 내년 예산안 기준 59조9000억원 규모다.

행안부는 이번 개선방안에서는 재정이 열악한 지역을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지만, 이번 교부세 안의 핵심은 재정 감축이다.

### '기회발전특구' 법인·상속·재산 등 100% 감면...감세 규모는 미추청

정부가 수도권에서 '기회발전특구'로 사업장을 옮기는 기업에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상속세 등 주요 세금을 한시적으로 100% 감면해준다.

법인 소득은 5년간 100% 감면하고 이후 5년간 2년간 50% 감면, 보유세는 5년간 100% 감면하고 이후 5년간 50% 감면하는 등 강력한 세금지원으로 꾸렸다.

1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 따르면 '기회발전특구'를 담은 '제1차 지방시대 종합 계획(2023~2027년)'이 최근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 기업이 기회발전특구로 이동하거나 특구에서 창업 시 패키지 세금 인센티브를 받는다.

5년간 법인세 100% 감면을 받고 이후 2년간 법인세를 50%를 감면받는다.

특구 내 부동산 취득세는 100% 감면되고, 재산세는 5년간 100% 감면, 이후 5년간 50% 감면된다.

부동산 양도소득 관련한 소득·법인세는 과세 이연 혜택을 받는다.

기업상속 공제 사후관리 요건도 대폭 완화하고, 개발부담금을 100% 감면한다.

'기회발전특구 펀드'의 경우 10년 이상 투자 시 이자·배당소득에 감세 혜택을 받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늘어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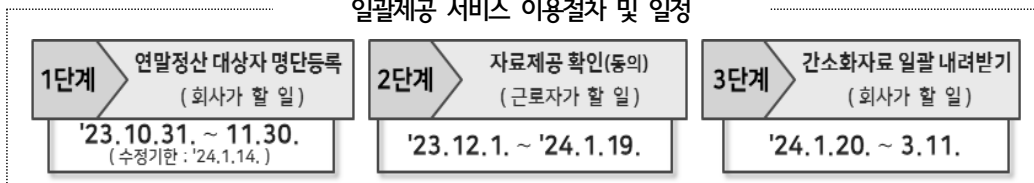
특구 기업 임직원에 대해서 10%까지 민영주택 특별 공급을 제공하고, 이밖에 회사 따라 집을 옮겨야 하는 임직원에 대한 지원을 마련한다.

# 2천만 근로자의 연말정산, 미리 준비하세요.

— 국세청, 2023. 11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은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제공하는 것에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근로자는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하여 연말정산 자료를 출력할 필요가 없으며, 회사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료 제출 안내 및 수집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회사는 근로자 명단등록 절차를, 근로자는 자료제공 확인(동의) 절차를 일정에 맞춰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절차 및 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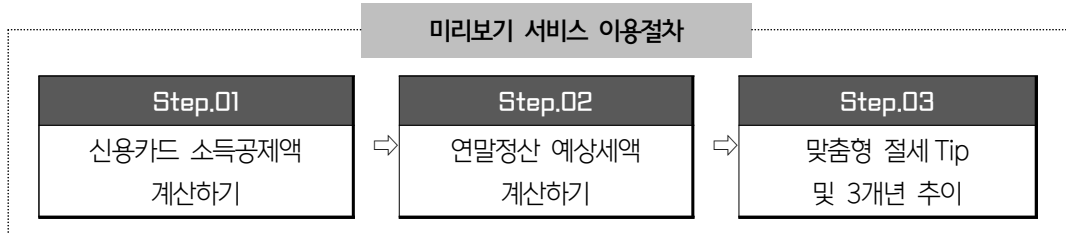


- 앞으로도 국세청은 연말정산 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개선하여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 I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절세전략을 세우세요.

-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현재 지출·저축상황을 점검하고, 올해 남은 기간 안에 최선의 절세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서비스입니다.
  - 올해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을 제공하며, 10월 이후의 지출내역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고,
  - 지난해 연말정산한 금액으로 미리 채워진 각 항목의 공제금액을 수정하면 올해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으며, 절세 팁으로 제공하는 추가공제 가능 금액도 반영해 볼 수 있습니다.

- 또한, 기부 의사 · 저축 계획 등에 따라 고향사랑기부금 · 연금계좌 납입액 등을 추가 반영하면 추가 공제금액과 예상 절감세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 [Step.01]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 (개요) 미리 채움으로 제공되는 '23.1~9월분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10~12월 사용예정금액을 입력하면 예상 소득공제금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 (활용) 결제수단 · 사용처별 ①공제율이 상이하므로,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높은 ②현금영수증 · 전통시장 등의 사용 비중을 높이면 소득공제금액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 ① 신용카드(15%), 현금영수증 · 도서 · 공연 등(30%), 전통시장(40%), 대중교통(80%)
  - ② 월세액을 현금영수증으로 발급하여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하므로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검색하여 신청 (월세 세액공제와 중복 불가)

□ [Step.02]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 (개요) 미리 채워진 지난해 연말정산 공제금액을 수정하고, 올해 예상되는 총급여액과 기납부세액을 입력하면 예상 환급(납부)세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 (활용) 인적공제, 보험료 · 연금저축 등 공제항목을 지출계획에 맞춰 수정하고 공제한도 초과 · 미달액 등의 정보를 활용하여 절세 방안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 \* 기부·저축계획이 있는 경우 올해 신설된 고향사랑기부금(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와 한도 확대된 연금계좌 세액공제[연 600만 원 (퇴직연금 포함 900만 원)] 활용

□ [Step.03] 항목별 절세 도움말 (Tip)

- (개요) 최근 3년 공제액 · 세액 추이 및 원인과 실제 부담하는 세율정보를 알려 주고, 올해 예상세액을 토대로 맞춤형 절세도움말과 유의사항도 안내합니다.
- (활용) 연금저축 · 교육비 · 신용카드 등 공제항목별 추가공제 가능금액과 공제요건을 확인하여 연말까지 저축 · 지출계획에 맞춰 절세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 미리보기 서비스 접근경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① 홈택스([www.hometax.go.kr](http://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공동 ·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 ② 접속 후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선택





## II

## 「맞춤형 안내」에서 나만의 절세정보를 확인하세요.

- 「맞춤형 안내」에서는 국세청에 신고한 자료와 간소화자료 등을 정밀 분석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항목별 정보를 개별 제공하며, 맞춤형 안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팝업으로 알려드립니다.



## 맞춤형 안내대상자 이렇게 선정하였습니다!

- ①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 기업의 업종·자산규모·매출액 등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근로자가 확인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여부 판단
  - 근무이력·병역자료·장애인 여부 등을 통합 분석하여 요건을 충족하면서도 감면 신청 이력이 없는 근로자에게 안내
- ② 교육비 세액공제
  - 수집된 간소화자료를 활용하여 학자금대출 상환이력이 있으나 공제를 받지 않은 근로자에게 안내
- ③ 월세액 세액공제
  - 임대인 신고 자료를 활용하여 주거형태가 월세이면서 기준시가·규모를 충족하는 주택 확인 후 총급여·주택보유현황 등을 통합 분석하여 안내
    - ▶ 주택요건 :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 ④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로 수집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자료와 주택보유현황을 통합 분석하여 안내
    - ▶ 주택요건 : 기준시가 5억 원 이하
- 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로 수집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자료와 주택보유현황을 통합 분석하여 안내
    - ▶ 주택요건 : 국민주택규모 이하
- ⑥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로 수집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자료와 총급여·주택보유현황을 통합 분석하여 안내

- 맞춤형 안내 공제항목의 요건 충족여부는 분석한 시점의 자료를 기준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실제 연말정산할 때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니 요건을 충족하는지 꼼꼼히 확인하여 공제를 적용하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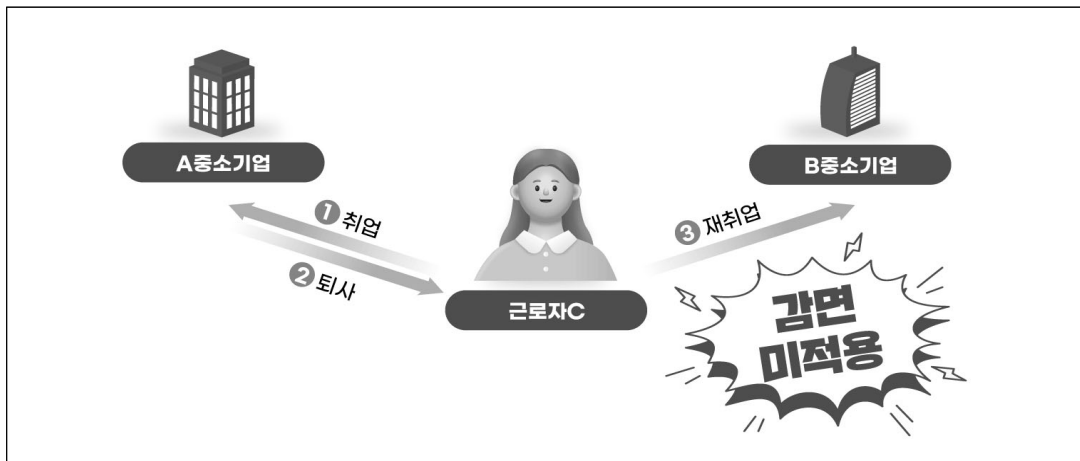
\* 사례 : (안내) 무주택세대에 대하여 월세 공제 가능 → (실제) 이후 주택 취득 시 공제 불가

## 〈맞춤형 안내를 이용한 절세사례〉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2010년부터 A중소기업에 근무하던 여성 근로자 C씨는 2020년 결혼을 하면서 회사를 그만둔 후 2023년부터 동종 업종을 영위하는 B중소기업에 재취업하였으나, 청년 사례 ❶ 만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지 않음

※ 2017년부터 감면대상자에 경력단절 여성 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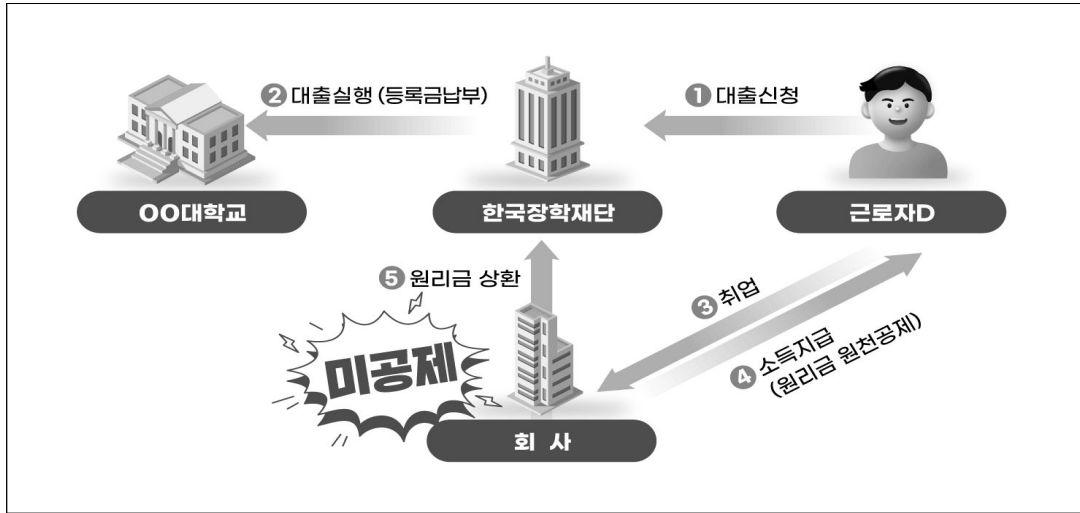
안 내	▶ 감면 요건				
	구분	요건	감면 기간	감면 율	감면 한도
	청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이하인 자	5년	90%	과세 기간 별  200 만 원
	고령자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	3년	70%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등			
경력 단절 여성	①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을 것 ②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 사유로 퇴직하고 ③ 퇴직한 날부터 2~15년 이내 동종 업종에 재취직 ④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최대출자자, 대표자)나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절 세 효 과	☞ 연말정산 예상 절감세액 : 2백만 원 (산출세액 3,002,000원 가정) ▪ 3,002,000원 × 70% = 2,101,400원(한도 2백만 원)	
------------	--	--



## 교육비 세액공제

사례 ② 근로자 D씨는 대학교에 재학 중 2022년 6월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대출을 받아 등록금으로 납부하고, 취업 후 매월 50만 원씩 의무상환하였으나 상환금이 교육비 대상인지 몰라 공제받지 못하였음



안 내	▶ 공제대상 및 금액		
	구 분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일 반 교육비	본 인	한도 없음
		부양가족* (나이제한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 1명당 연 300만 원</li> <li>대학생 : 1명당 연 900만 원 (대학원생은 공제대상 아님)</li> </ul>
	장애인 특수교육비 (직계존속 포함, 소득제한 없음)		한도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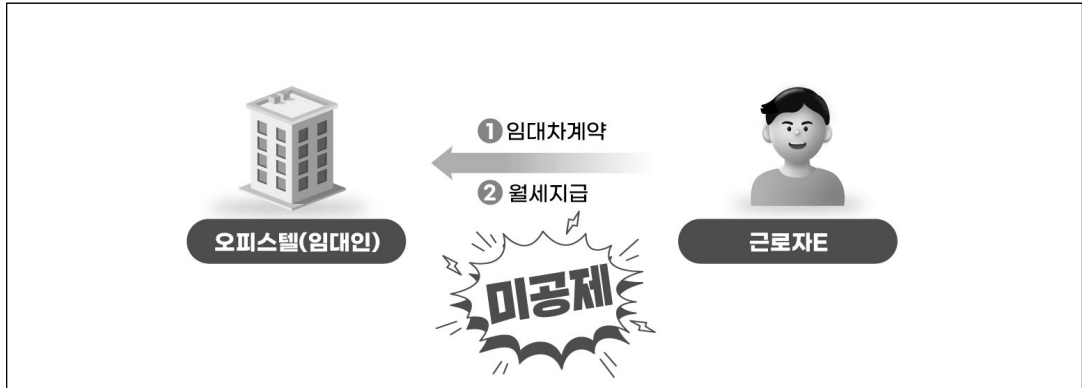
\* 직계존속의 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님

절 세 효 과	☞ 연말정산 예상 절감세액 : 90만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6,000,000원 (50만 원×12개월)</li> </ul>	× 15%	= 900,000원

## 오피스텔 월세액 세액공제

### 사례 ③

E씨는 회사 인근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며 월세 50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오피스텔은 공제대상 주택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세액공제 받지 않음



### 안 내

#### ▶ 공제대상자

- 총급여 7,000만 원\* (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  
\* 월세액의 15% 세액공제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자 17%)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 받지 않은 경우)
-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주택 임차

#### ▶ 공제대상 주택

- 국민주택규모(85㎡)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 ☞ 임대차계약증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 동일

### 절 세 효 과

☞ 연말정산 예상 절감세액 : 102만 원

- 6,000,000원 (50만 원×12개월) × 17% = 1,020,000원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 사례 ④

무주택 세대주인 F씨는 주택완공 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전환 조건으로 대출을 받아 아파트 분양권\*(5억 원)을 취득하고 매월 40만 원씩 이자를 내고 있으나, 분양권은 4억 원 이하만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줄 알고 소득공제를 받지 않음

\* 2021.1.1. 차입하는 분부터 분양권 가액 기준 4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



### 안 내

#### ▶ 공제대상 주택

-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인 주택
  - 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 차입 ⇒ 차입일 이후 최초 공시된 가격
  -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분양권 or 조합입주권 취득 ⇒ 5억 원 이하
- 세대원의 소유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 ⇒ 공제 불가
  - \* 과세기간 중에 2주택 이상이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이면 공제 가능

#### ▶ 소득공제 혜택

- 이자상환액 전액 소득공제

### 절 세 효 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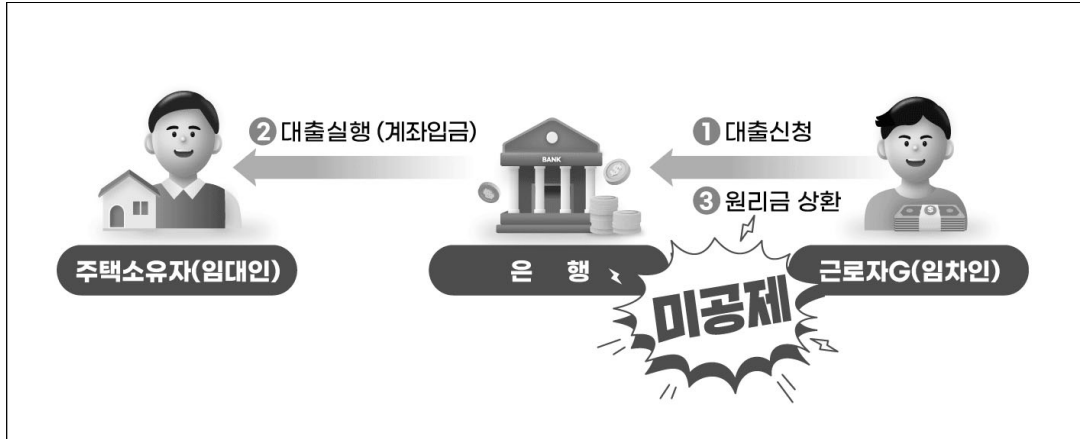
☞ 연말정산 예상 절감세액 : 33만 원 (평균 실효세율 7% 가정)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금액 : 480만 원\*

\* 2023년 연간 이자상환액 480만 원 (40만 원×12개월) 전액 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사례 ⑤** 근로자 G씨는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하면서 대출금과 이자로 매월 100만 원씩 갚고 있으나, 소득공제를 받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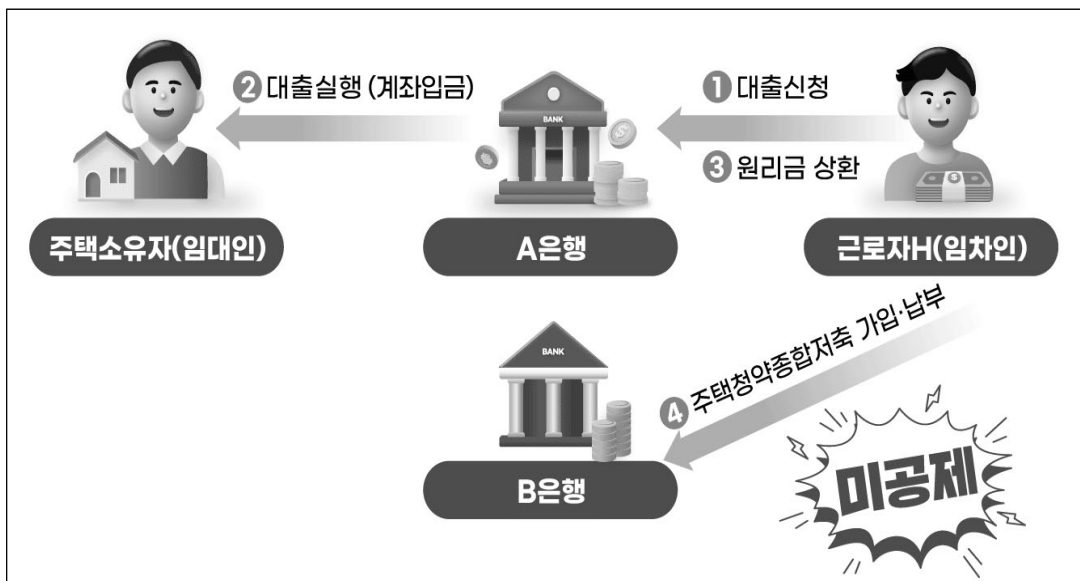
- 안 내**
- ▶ 공제대상자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일정 요건의 세대원\* 및 외국인 포함
    - \* 세대주가 주택임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임차차입금 이자상환액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
  - ▶ 공제대상 주택
    -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이 경우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 기준

- 절 세 과**
- ☞ 연말정산 예상 절감세액 : 28만 원 (평균 실효세율 7% 가정)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금액 : 400만 원\* (한도 400만 원)
  - \* 2023년 연간 원리금 상환액 1,200만 원 (100만 원×12개월)의 40% 공제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사례 ⑥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 H씨는 2021년 ①전세자금을 대출받아 대출금과 이자로 매월 60만 원씩 갚으면서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았고, 2023년 1월 B은행의 ②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매월 20만 원씩 납입하면서도 기존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과 합하여 400만 원까지 중복공제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소득공제 받지 않음



## 안 내

## ▶ 공제대상자

-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2023년 기준)
  -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12. 31. 기준)
  -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여 일정 금액을 납입할 것(본인 명의로 한함)
- ※ 2015.1.1.이후 납입 ⇒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  
요건 필요

절 세  
효 과

연말정산 예상 절감세액 : 7만 원 (평균 실효세율 7% 가정)

- 소득공제 금액 : (① + ②) = 384만 원\* (한도 400만 원)

①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금액 : 288만 원

②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금액 : 96만 원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720만 원 +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240만 원) × 40%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으로 더 편리하게 연말정산 하세요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근로자가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제공하는 것에 확인(동의)한 경우 간소화자료(부양가족 포함)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근로자는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국세청이 회사에 제공한 자료를 활용하여 회사 시스템에서 손쉽게 연말정산 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으로부터 한 번에 제공받을 수 있어 자료 제출안내·수집 등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이 줄어듭니다.

### 1단계 근로자 명단등록 (회사→국세청, '23. 11. 30.까지)

- 간소화자료를 일괄제공 받고자 하는 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23. 10. 31. ~ 11. 30. 중 홈택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 \*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일용근로자, 중도퇴사자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
  - '23. 11. 30.까지 등록하지 못했거나 입·퇴사자 등으로 이미 등록한 명단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24. 1. 14.까지 신규 등록·수정이 가능합니다.
- 올해부터는 연말정산 전년도 명단 불러오기 기능을 통해 간편하게 원클릭으로 재등록하거나 명단 수정(추가·삭제)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회사는 엑셀서식에 근로자 명단을 작성해 홈택스에 업로드하거나 직접 입력할 수도 있고, 상기 방법을 병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명단등록 시에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일괄제공받은 파일의 압축을 해제할 때 사용할 비밀번호\* (4자리 숫자)를 반드시 설정해야 합니다.
    - \* 분실 시 홈택스의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등록' 화면에서 확인 가능
  - 회사 기장업무를 수임한 세무대리인에게 연말정산 업무를 위임한 경우 동 세무대리인\* 중 지정된 자에게 간소화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 기장업무 수임 세무대리인이 등록되지 않은 경우 수임 세무대리인 홈택스 등록 필요

### 2단계 자료제공 확인(동의) (근로자 → 국세청, '24. 1. 19.까지)

- 근로자\*는 '23. 12. 1.부터 '24. 1. 19.까지 홈택스(또는 손택스)에서 자료가 제공되는 회사와 제공되는 자료의 범위를 확인(동의)해야 합니다.
  - 최초 1회만 확인(동의)하면 퇴직 시까지 국세청이 회사에 자료를 제공합니다.
    - \* 자료제공 취소는 '일괄제공 신청확인(동의)·취소·조회' 화면에서 취소 가능
  - 자료제공 확인(동의)하지 않은 근로자의 자료는 제공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절차를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근로자가 자료제공에 확인(동의)하는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도 회사에 간편하게 일괄제공됩니다.
- 올해는 더 손쉽게 자료제공을 확인(동의)할 수 있도록 손택스(모바일) 자료제공 확인(동의) 메뉴로 바로 연결되는 Push알림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 근로자가 홈택스(또는 손택스)에 접속하면, 알림창을 통해 일괄제공 확인(동의) 화면으로 자동 연결되므로 간편하게 확인(동의)할 수 있습니다.

### 3단계 | 자료 내려받기 (국세청 → 회사, '24. 1. 20.부터)

- 국세청은 '24. 1. 20.부터 간소화자료 압축파일을 홈택스에서 순차적으로 제공하며, 회사는 이를 내려 받아 회사 시스템에 업로드하면 됩니다.
- PDF 압축파일 형식으로 간소화자료를 제공하며, 압축파일 1개당 최대 5GB 분량의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 필요한 경우 국세청(홈택스2담당관)에 요청하면 XML파일로도 자료 제공 가능
- 근로자는 일괄제공된 간소화자료 외에 추가할 사항\*이 있는 경우 회사에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 수동 발급받은 기부금 영수증 등)





## 연말정산이 간편해지는 일괄제공 서비스 활용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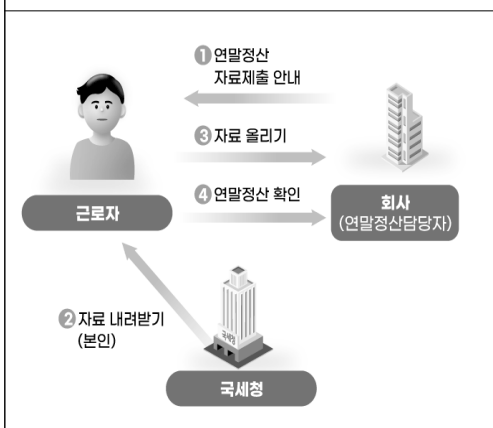
### 사례 ① 근로자의 간소화자료 제출 불편 해소

- (사례) 해외 출장 등 외근이 잦은 건설회사 A과장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회사가 정해진 자료제출 기간에 맞춰 제출하는데 어려움이 많음
- (효과) 국세청이 자료를 회사에 일괄 제공하므로 근로자가 홈택스에 접속하여 내려 받기 할 필요 없이 회사 시스템에서 간편하게 연말정산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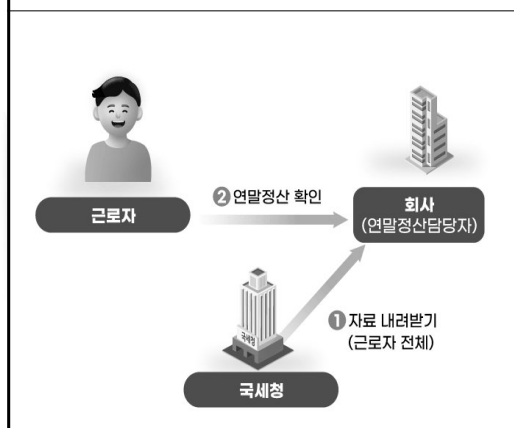
### 사례 ②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의 업무 부담 감소

- (사례) 연말정산 담당 B직원은 매년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간소화자료 제출토록 안내하고, 미제출 자에 대한 수회 개별 제출독려 안내로 어려움이 많음
- (효과) 국세청이 소속 근로자 자료를 일괄 제공하므로 별도 제출 안내 필요 없이 단기간 자료 수집 및 회사 시스템 업로드 가능

#### 서비스 미이용하는 경우



#### 서비스 이용하는 경우





## 참고 1 - 이번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개정 세법

### ❶ 기부금 세액공제

-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 ① 기부금액 10만 원 이하 : 100/110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30% 답례품 제공)
  - ② 기부금액 10만 원 초과 : 15% (500만 원 한도)
- 노동조합 조합비 : 소속된 ①노동조합이 11.30.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②'23.10월~12월에 납부한 조합비 15% (1천만 원 초과 30%) 세액공제 가능
  - ① 해당 노동조합이 소속된 총연합단체 · 연합단체 · 단위노동조합 · 산하조직 모두 포함
  - ② '23.1월~'23.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결산결과 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

### ❷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7.1.이후 지출하는 영화관람료는 문화비에 포함(총급여 7천만 원 이하)
- '23년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상향 : 40% → 80%
- 변경된 공제한도

총급여	기본공제한도	추가한도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300만 원
7천만 원 초과	250만 원	200만 원

### ❸ 연금계좌 · 교육비 · 월세 세액공제

- 연금계좌 공제한도 상향 : 400만 원 (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 → 600만 원 (900만 원)
- 수능응시료 · 대학입학전형료를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
-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 상향 : 3억 원 → 4억 원

### ❹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감면한도 상향 : 연간 150만 원 → 200만 원

### ❺ 일부 과세표준 구간 조정

종 전		개 정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12백만 원 이하	6%	14백만 원 이하	6%
46백만 원 이하	15%	5천만 원 이하	15%
46백만 원 초과~88백만 원 이하	24%	5천만 원 초과~88백만 원 이하	24%

## 참고 2 - (연말정산 미리보기) 접근 경로

- ① 홈택스 회원과 비회원 모두 이용 가능
  - 접근 방법(회원용)
    - ①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회원 접속
    - ② 접속 후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선택
  - 접근 방법(비회원용)
    - ①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접속
    - ② '편리한 연말정산' 메뉴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선택

## 참고 3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 방법

### Step.0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 '23.1~9월까지 쓴 신용카드 금액을 바탕으로 연말까지 예상 사용액을 입력해보고 공제혜택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소비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 맞벌이 부부 절세전략 사례

- 맞벌이 부부인 A(남편)과 B(아내)는 대학생 자녀 C를 부양하고 있음.  
→ C의 신용카드 사용액 1,200만 원을 누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한지?  
☞ B(아내)가 자녀 C를 공제받는 것이 유리

<미리보기 계산결과>

납세자	총급여	신용카드 사용액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 포함 시 소득공제액	절세효과*
A(남편)	8,500만 원	3,000만 원	131만 원	250만 원	8만 원 ↓
B(아내)	5,000만 원	1,500만 원	38만 원	218만 원	13만 원 ↓

\* 실효세율 7% 가정

계산방법 1 ① 연말정산 미리보기 → ② 지난 3개년 근무처 선택('20년, '21년, '22년)

- 근무처를 선택한 후 적용하기(③)를 누르면, 선택된 근무처의 연말정산 자료를 기초로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계산방법 2

① 2022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 선택 → ② 총급여액 입력·적용

- 신용카드 자료 불러오기(③)를 클릭하면 1월~9월까지 실제 사용한 신용카드금액이 제공되며, 10월~12월 사용예정액을 입력(④)후 계산하기(⑤)를 누르면 예상 절감세액이 자동계산(⑥)됩니다.
- 절세Tip 및 유의사항 과거 3년 현황, 소비현황도 확인할 수 있으며, **Step.02 가기** (⑦)를 클릭하면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로 이동합니다.

## Step.02

##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 총급여액·기납부세액 예상액과 부양가족, 소득·세액공제 항목 등을 입력하면 개정세법이 반영된 올해 연말정산 예상세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 계산방법 1

## 총급여와 기납부 수정

- ① 총급여와 기납부세액 수정 선택 → ② 총급여와 기납부세액 입력 → ③ 적용하기
- 연말까지 예상되는 총급여와 기납부세액을 입력하여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계산방법 2

## 부양가족 수정

- ① 인적공제 수정 → ② 변경사항 입력 → ③ 부양가족 공제자료 수정사항 반영
- 전년도 연말정산 자료로 미리채움된 공제 내용을 수정하여 계산(③)할 수 있습니다.

## 계산방법 3

## 소득·세액공제 항목 수정

- ① 공제항목 수정 → ② 변경사항 입력 → ③ 적용하기 → ④ 계산하기·저장
- 연금저축 세액공제 예상 금액을 계산하여 저축계획이 있는 경우 추가 납입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 계산방법 4

## 납부(예상)세액 계산 (①계산하기 클릭 → ② 세액 확인)

- 모든 공제항목 내용을 반영한 후 계산하기(①)를 클릭하면 납부(환급)예상세액(②)이 자동 계산됩니다.

### Step.03 항목별 절세 도움말(Tip)

- 최근 3년 동안의 근무지별 급여·공제금액·세금납부 추이 등을 그래프와 표로 확인할 수 있으며 각 공제항목을 선택하면 추가공제 가능금액을, 유의할 사항에서는 근로자들의 실수가 많은 과다공제 유형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 4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명단 등록·관리 방법

### 1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 등록 방법

#### 접근 경로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 간소화 → 연말정산 일괄제공 → (회사용)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등록

#### 유형별 이용 대상

- 유형 1: 홈택스에 직접 명단을 입력하는 경우
- 유형 2: 엑셀파일을 업로드하여 명단을 입력하는 경우
- 유형 3: 전년도 등록 명단 불러오기 기능을 활용하는 경우

#### 유형 1 홈택스에 직접 명단을 입력하는 경우

① '직접 입력' 선택 → ② 근로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 ③ '자료추가' 선택 → ④ '근로자 명단 제출하기' 선택하여 완료

#### 유형 2 엑셀파일을 업로드하여 명단을 입력하는 경우

① '엑셀파일' 선택 → ② '찾아보기' 선택하여 이미 작성해둔 엑셀파일\*을 찾아서 선택 → ③ '엑셀 명단 제출하기' 선택하여 완료 (④ '검증결과 조회'로 오류 여부 등 확인)

\* 작성해둔 엑셀파일이 없는 경우: '엑셀서식 내려받기'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명단 작성 후 업로드

#### 유형 3 전년도 등록 명단 불러오기 기능을 활용하는 경우

① '전년도 명단으로 그대로 제출' 선택 → ② '전년도 명단 제출하기' 선택하여 완료 → ③ '검증결과조회'로 오류 여부 등 확인



## ② 연말정산 대상 명단 관리

### 접근 경로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 간소화 → 연말정산 일괄제공 → (회사용)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내역 확인 및 관리

① '조회하기' 선택 → ② 제외(자료 제공대상에서 제외) 또는 ③ 제외취소(자료 제공대상 복구) 선택하여 수정사항을 반영하거나, ④ '명단 내려받기' 선택 가능

## 참고 5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내역 확인(동의) 방법

### ① 홈택스로 확인(동의)하는 방법

#### 접근 경로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 간소화 → 연말정산 일괄제공 → (근로자용)일괄제공 신청확인·동의·취소·조회

① 간소화자료를 제공할 회사 선택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함' 선택 → ③ '확인(동의)하기' 선택하여 완료

### ②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로 확인(동의)하는 방법

#### 접근 경로

국세청 손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서비스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확인(동의) 및 조회

## 참고 6 - 주요 연말정산 일정

☐ 올해 예정된 주요 연말정산 일정은 아래와 같으며, 업무 진행 상황에 따라 일정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일 자	연말정산 업무
'23. 10. 31.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통
'23. 10. 31.~ 11. 30.	▪ 일괄제공대상자 명단 등록 ('24.1.14.까지 수정 가능) ▪ 신용카드 사용금액 오류 신고센터 운영
'24. 1. 1.~'24. 1. 7.	▪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간소화자료) 제출
'24. 1. 15.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24. 1. 15.~ 1. 17.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
'24. 1. 15.~ 1. 18.	▪ 간소화자료 수정·추가 제출
'24. 1. 18.	▪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개통
'23. 12. 1.~'24. 1. 19.	▪ 일괄제공 서비스 근로자 자료제공 확인(동의)
'24. 1. 20.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확정자료 제공
'24. 1. 20.~ 3. 11.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압축파일 내려 받기
'24. 2. 28.	▪ 공제신고서 및 증빙자료 검토
'24. 3. 11.	▪ 원천세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 참고 7 - 자주 묻는 질문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관련 1~6]

- |   |   |
|---|---|
| 1 | <p>「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미리 채워주는 금액은 근로자의 2023년도 실제 사용 금액인가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용카드 등(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금액만 실제 2023년 1월부터 9월까지 사용한 금액 이고,</li> <li>- 나머지는 2022년도 연말정산 신고금액이므로, 각 공제항목을 올해 사용 예정 금액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li> </ul> |
|---|---|





2

〈Step.0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 예정금액은 많은데 예상 절감세액은 '0'원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의 이하이거나, 다른 항목의 공제금액으로 신용카드 등 공제를 받지 않더라도 결정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금액이 많아도 예상 절감세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 ※ 총급여 25% 초과분에 대해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직불카드 등 30%, 문화비 30%, 전통신장 40%, 대중교통 80% 소득공제 적용
- 〈Step.01〉에서는 간편 계산을 위해 지난해 연말정산 내용을 바탕으로 합니다. 따라서 〈Step.02〉에서 각종 공제항목을 올해 예상금액으로 수정하면 연말정산 예상세액이 달라져 신용카드 등 예상 절감세액도 달라질 수 있으며, 이 경우 〈Step.01〉로 이동하면 변경된 예상 절감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계산 결과는 내년 2월의 연말정산 결과와 동일한가요?

-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정보들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과 전년도('22년) 연말정산 금액으로 미리채움 된 공제 항목입니다. 10월부터 12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 예정금액을 입력하고 항목별 공제금액을 수정하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으나, 내년 2월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4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제공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자료 중 전통신장 사용분이 일반 신용카드 사용분으로 잘못 분류된 경우 어떻게 하나요?

- 신용카드사 등으로부터 소득공제율이 다른 전통신장·대중교통 사용분, 도서·공연·신문·박물관·미술관·영화관람료 사용분, 일반 사용분으로 구분된 신용카드 자료를 각각 제출받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전통신장 등 사용금액이 잘못 분류\*된 경우에 근로자가 국세청 홈택스에 신고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사용금액 오류 신고센터」를 2023. 10. 31.(화)~11. 30.(목)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 (원2인) 전통신장 지번이 누락되거나, 가맹점 정보 등이 미(지연)등록되어 전통신장, 도서공연비 등 사용분을 일반 사용분으로 잘못 분류하는 경우 등

[접근 경로]

국세청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영수증 발급처 자료제출 → 신용카드 사용금액 오류 신고센터

- 국세청은 신고 내용을 확인하여 2024년 1월 제공되는 자료에 정확히 반영되도록 해당 카드사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5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자료는 부양가족이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해야만 근로자가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 미성년 자녀 (2005. 1. 1. 이후 출생)는 자료제공동의 절차 없이 부모가 「미성년 자녀 자료 조회신청」을 하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접근 경로]

(PC)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 (미성년 자녀/본인인증수단/팩스신청)

(모바일) 손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서비스 → 미성년자녀 자료 조회신청

- 다만, 성년이 된 자녀(2004. 12. 31.이전 출생)의 경우 자녀가 자료제공동의를 신청해야 근로자가 자녀의 신용카드 등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6

<step.04>에서 맞춤형 안내를 받은 소득·세액공제 항목은 연말정산 시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Step.04> 맞춤형 안내는 근로자들이 빠뜨리기 쉬운 공제항목을 선정한 후,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안내 대상자를確定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전에 공제요건, 혜택 등을 제공한 것입니다.
- 따라서, 안내 시점과 연말정산 시점 간 차이로 실제 연말정산시에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니 요건을 충족하는지 꼼꼼히 확인하여 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기 바랍니다.

**[ 일괄제공 서비스 7~13 ]****< 근로자 >**

7

회사가 근로자의 명단을 등록하는 것과 별도로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또 한 번 자료제공 확인(동의)을 해야하는 이유는?

- 다양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간소화자료의 일괄 제공 시 부적절한 개인정보 유출이 없도록 근로자가 회사의 신청 내역을 확인(동의)하는 절차를 마련하였으며, 확인(동의)를 완료하지 않은 근로자의 자료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 이미 한번 확인(동의)을 완료한 근로자는 해당 절차를 다시 이행하지 않아도 국세청이 간소화자료를 매년 회사에 제공합니다.
- 회사가 명단 등록한 근로자를 관리하는 화면\*에서 근로자별 확인(동의) 여부를 파악하고 안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의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 내역 확인 및 관리'에서 가능

8

일괄제공 서비스 자료제공 확인(동의)을 하려고 홈택스(또는 손택스)에 접속했는데 제공하는 회사가 목록에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회사가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등록한 경우에만 해당 근로자가 자료제공 확인(동의) 화면에서 자료를 제공할 회사의 확인이 가능합니다.
  - 자료를 제공할 회사가 확인되지 않는 근로자는 소속 회사가 ①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②해당 근로자를 명단등록 시 누락한 경우에 해당하오니 관련 사항은 회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도 같이 일괄제공 받을 수 있나요?

- 부양가족이 '24. 1. 19. (금) 이전에 자료제공에 동의한 경우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도 근로자의 자료와 함께 제공되므로, 별도의 절차를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10

작년에 일괄제공에 확인(동의)을 한 것 같은데 올해 다시 해야 하나요?

- 재직 중인 회사에 이미 한번 확인(동의)을 완료한 근로자는 해당 절차를 다시 이행하지 않아도 퇴직시까지 간소화자료가 회사에 제공됩니다.

## <회 사>

11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할 회사는 소속 근로자를 모두 명단 등록해야 하나요?

- 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의 전체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하면 되며, 등록 이후 입·퇴사자 등으로 인해 명단을 수정해야 하는 경우 '24. 1. 14. (일)까지 홈택스에서 추가·삭제·변경이 가능합니다.
- 회사가 명단을 등록하더라도 근로자가 자료제공에 확인(동의)하지 않으면 국세청은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12

작년에 근로자 명단을 등록했는데 올해 또 명단을 등록해야 하나요?

- 직원의 입·퇴사 등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일괄제공 받을 근로자 명단은 매년 1회 반드시 새로 등록해야 합니다.
  - 국세청은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 시 필수적인 절차인 명단 등록을 보다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전년도 명단 불러오기' 기능을 추가하여 연말정산 편의 제고를 위한 적극행정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13

간소화자료를 세무대리인에게도 제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회사 기장 업무를 수임한 세무대리인에게 연말정산 업무를 위임한 경우 동 세무대리인\* 중 지정된 자에게 간소화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 기장업무 수임 세무대리인이 등록되지 않은 경우 수임 세무대리인 홈택스 등록 필요
  - 근로자 등록화면에서 상기 세무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서민의 위기를 기회 삼는 민생침해 탈세 엄단

— 국세청, 2023. 11

- (그간의 성과) 국세청은 고금리·물가, 입시과열 분위기 등에 편승하여 서민을 상대로 사익을 편취하는 민생침해 탈세자를 엄단하기 위하여 현 정부 출범 이후 9월까지 246명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2,200 여억 원의 세금을 추징하였습니다.

## / 주요 업종별 탈루유형 /

학원업	· (학원) 학원비 현금·차명수취 신고누락, 직원 소득을 사주가페이백 수취, 가족 소유 특수관계법인을 무상지원하여 이익분여 · (강사) 강의료·인세 등 소득 분산, 개인 사치품 구입비 등 사업경비 처리
대부업	· 전국적 피라미드 조직을 통해 최고 연 9,000% 이자 차명수취 및 전액 신고누락
장례업	· 장지 분양대금을 차명수취하여 신고누락하고, 법인자금을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
프랜차이즈	· 가맹비·교육비는 신고누락하고, 가족 가맹점으로부터 로열티 미수취
도박업	·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하며 차명으로 수취한 도박자금 신고누락

- (조사착수) 지속적인 민생침해 탈세자 세무조사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을 상대로 상식 밖의 폭리를 취하거나, 신종 수법을 활용한 지능적 탈세가 계속되고 있어, 이들 탈세혐의자 105명에 대해 추가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 / 유형별 조사대상자 /

유형 1	· '영끌 투자붐'을 악용하여 개미투자자를 올리는 주식·코인 리딩방 운영업자 [41명]
유형 2	· 미술품 렌탈 페이백 등 탈세 일삼은 코로나 호황 병·의원 및 가담 업체 [12명]
유형 3	· 자금줄이 막힌 서민에게 고리 이자를 뜯어간 불법 대부업자 [19명]
유형 4	· 식료품 제조업체 등 고물가에 편승한 폭리 탈세자 [33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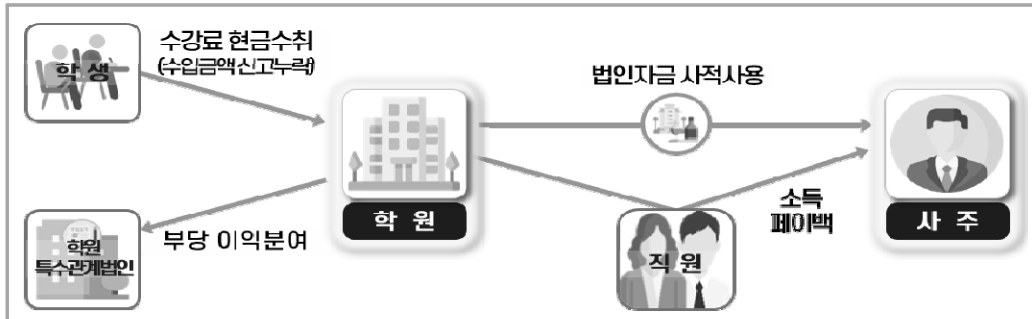
- (향후계획) 앞으로도 국세청은 서민경제 안정을 뒷받침하면서도, 대다수 성실납세자에게 상실감을 주고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리는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습니다.

## 1 민생침해 탈세자 세무조사 성과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어려운 경제여건을 틈타 『공정과 상식』을 깨트리며 서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해 꾸준히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엄정히 대응해 왔습니다.
- '22년 5월, 가격담합, 과도한 가격인상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폭리를 취하는 프랜차이즈업체, 건설자재 담합업체, 도박업자 등을 시작으로
  -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해 연중 상시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으며, 주요 탈루사례 등을 보도자료로 발표하였습니다.
- 현 정부의 민생침해 탈세에 대한 집중적인 세무조사 실시로 9월까지 246명에 대해 이들이 탈루한 세금 총 2,200 여억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 특히, 조세포탈·질서위반 행위가 확인된 10명에 대해서는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고발 또는 통고처분 하였습니다.
- 이들 246명의 민생침해 탈세자 조사에서 드러난 주요 탈루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키며 고수익을 누리는 학원·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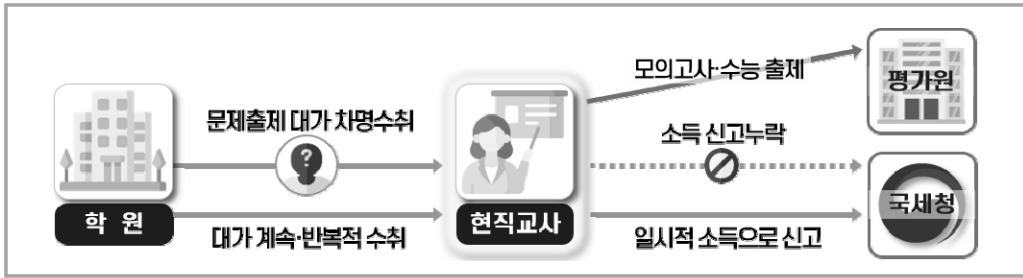
- 첫 번째로,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심리를 파고들어 사교육을 유도하면서 고수익을 누리고 호화 생활한 학원·강사 등의 탈세를 확인하였습니다.
- (학원사업자) 일부 학원사업자는 엄청난 수익을 누리면서도 학원 자금을 마치 개인의 지갑처럼 유용하고, 가족의 부를 늘리는데 이용하였습니다.
- 학원비를 현금·차명 수취하여 수입금액 신고누락 하였으며, 학원 내 소규모 과외를 운영하면서 과외비는 자녀계좌로 수취하여 우회 증여하였습니다.
- 직원에게 소득을 과다지급하거나 직원 가족에게 가공지급 후, 인건비 경비처리하고 지급금액 중 일부를 현금 출금하게 하여 학원 사주가페이백으로 수취하였습니다.
- 아파트 임차료 등 사주 개인비용을 법인경비 처리하고, 법인 신용카드를 파인다이닝, 특급호텔 등 개인 호화생활을 영위하는데 사용하였습니다.
- 전국적으로 학원을 운영하면서 지역에 소재하는 학원 지점으로부터 수취한 브랜드 사용료를 사주 개인명의 계좌로 입금받아 신고누락하였고,
  - 가족이 소유하고, 학원 관련업을 영위하는 특수관계법인에 용역대가를 과다지급하거나 자금을 무상지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익을 분여하였습니다.



- (스타강사) 일부 스타강사들은 수험생들의 기대와 신뢰를 바탕으로 유명세와 고수익을 누리면서도 법인에 소득을 분산하는 방법 등으로 탈루하였습니다.
- 강의·교재 매출이 증가하자 특수관계법인을 설립한 후 강사가 수취하여야 할 강의료·인세를 법인에 귀속시켜 소득을 분산하고 개인소득세를 축소하였으며,
  - 고가 미술품, 명품 의류 등 개인 사치품 구입비를 사업경비 처리하고, 호화 슈퍼카를 업무용 승용차로 둔갑시켜 관련 비용을 경비처리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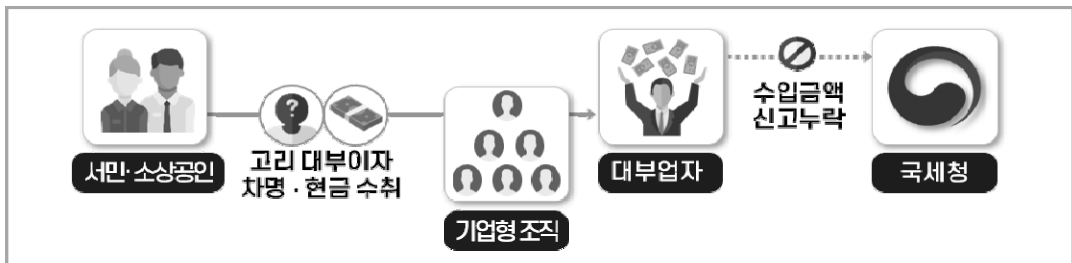


- (현직교사) 학원업 세무조사 과정에서는 일부 현직교사가 학원 등으로부터 대가를 수취하면서 탈세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 이들은 학원에 문제를 판매하고, 그 대가를 수취하면서 가족계좌 등으로 차명·우회 수취하여 개인소득세 누진과세를 회피하였는데,
    - 이 과정에서 학원은 현직교사의 탈루행위에 일조하여 이들의 가족에게 소득을 지급한 것처럼 국세청에 '허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또한, 이들 중 일부는 학원에 여러차례 계속 반복하여 문제를 판매하고 받은 대가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하는데, 일시적인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여 소득세를 축소하였습니다.



## ② 피라미드 조직으로 반사회적 불법 행위 일삼는 악덕 대부업자

- 두 번째로, 자금난에 허덕이는 신용 취약계층에게 법정이자율을 넘는 고리로 자금을 빌려주고, 수취한 이자소득은 대부업 미등록하여 신고누락하는 악덕 대부업자들의 반사회적 탈루행위가 확인되었습니다.
- 전국적인 피라미드 조직을 결성하여 신용 취약계층을 상대로 연 9,000%가 넘는 초고율로 자금을 빌려주면서 조직원이 수금한 이자수입은 신고누락하고, 호화 요트 등을 차명으로 구입하여 재산을 은닉하였습니다.



## ③ 유가족을 상대로 폭리를 취하며 탈루하는 장례업자

- 세 번째로, 유가족의 슬픔을 돈벌이에 악용하여 고가의 장례대금을 현금으로 수취하면서 신고누락한 장례업자의 탈루행위도 적발되었습니다.
- 지인 등 차명계좌로 장지 분양대금을 수취하고, 가짜계약서를 비치하여 적극적으로 수입 신고누락 하였으며, 법인자금을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적으로 사용하고, 근무하지 않는 친·인척에게 가공인건비를 지급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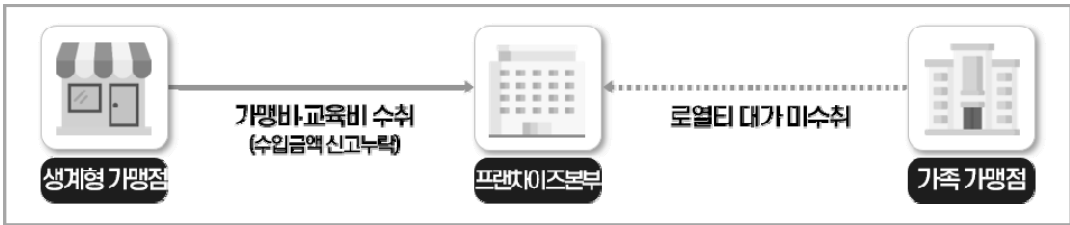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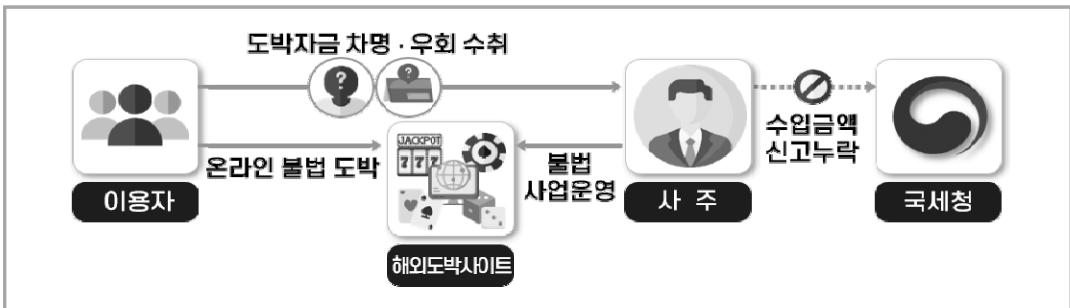
#### ④ 생계형 가맹점으로부터 가맹비를 착취하며 신고누락하는 프랜차이즈 본부

- 네 번째로, 생계형 가맹점으로부터 가맹비, 교육비 등 여러 명목으로 대금을 착취하면서 사주 일가의 이익은 챙긴 프랜차이즈 본부의 탈루행위를 확인하였습니다.
- 외식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면서 생계형 가맹점으로부터 가맹비, 교육비 등 여러 명목으로 수취한 대금은 매출 신고누락하고, 가족이 운영하는 가맹점에서는 받아야 할 로열티 대가를 미수취하여 부당지원하였습니다.



#### ⑤ 취약계층의 사행심을 부추기며 탈루하는 도박업자 등

- 그 외에도 불법 온라인 도박 등 기타 서민생활 밀접 분야 세무조사를 통해 서민에게 고통을 주는 탈세자들을 적발하였습니다.
- 도박업자는 국외에서 불법 온라인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취약계층의 사행심을 부추기고, 대포통장 등으로 차명 수취한 고액의 도박자금 수입을 신고누락하였습니다.



## 2

### 민생침해 탈세자 추가 조사확수

- 지속적인 민생침해 탈세 대응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자의 경우 여전히 서민의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배 불리기에만 치중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사회·경제 동향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현장정보 분석 등을 통해 민생침해 탈세 혐의자들을 추가로 포착하여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 이번 조사대상자는 ❶ 주식·코인 리딩방 운영업자 (41명), ❷ 코로나 호황 병·의원 및 가담 업체 (12명), ❸ 불법 대부업자 (19명), ❹ 생활밀접 분야 폭리 탈세자 (33명) 등 총 105명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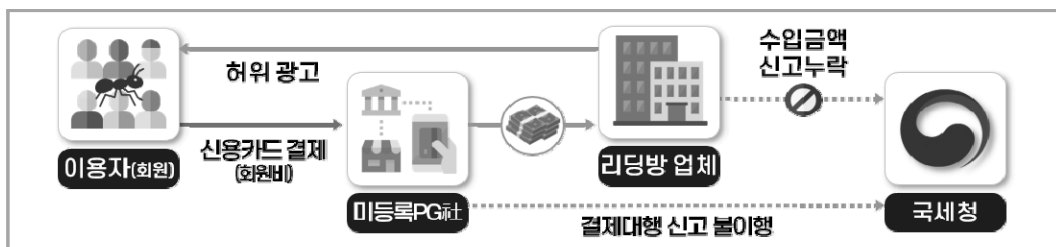


#### ❶ '영끌 투자붐'을 악용하여 개미투자자를 울리는 주식·코인 리딩방 운영업자

- 첫 번째 유형은 자산 투자시장의 포모증후군\*을 악용하여 노년층·사회초년생 등 취약계층의 소중한 종잣돈·노후자금에 피해를 준 주식·코인 리딩방 운영업자입니다.

\* Fear Of Missing Out Syndrome : 최근 수년간 자산가격 폭등으로 '버락거지', '영끌' 등 신조어가 생겨나는 상황에서 개인의 열등감·조급함을 유발하여 자산 투자에 무리하게 진입(패닉바잉)하는 현상

- (주식 리딩방 운영업자) '수익률 300% 보장', '미공개 폭등 작전주 정보' 등 허위광고로 개미투자자들이 'VIP 멤버십'에 가입하도록 유도하면서 역대에 이르는 고액 회원비는 미등록 PG사로 수취하여 매출 신고를 누락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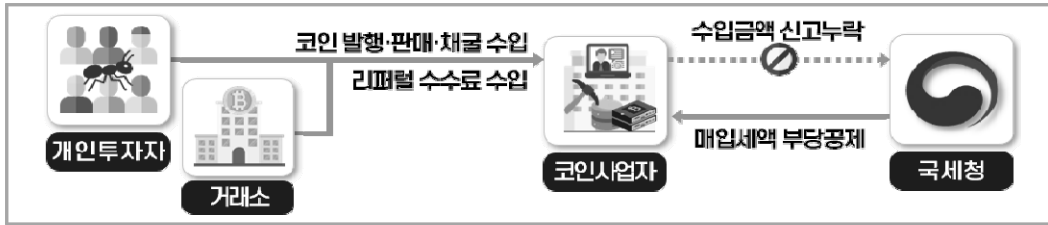


- (코인 사업자) 극도로 가격 변동성이 높은 코인 시장 상황을 악용하여 '코인 급등 장면' 등 자극적인 개인방송으로 '해외 코인 선물' 투자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취득한 '리퍼럴\*' 소득 등은 신고누락하거나,

\* 투자자가 거래소 가입 시 거래소는 추천인에게 일종의 알선 수수료로 리퍼럴 소득을 지급

- 가격이 높은 상장 초기에 매각하고 얻은 엄청난 발행·판매 수입은 신고누락하고, 코인 공급 관련 매입세액은 부당 공제받았습니다.
- 또한, 법인의 채굴장 운영으로 획득한 대금을 사주 개인계좌로 송금하여 수입신고는 누락

하고 법인자금을 유출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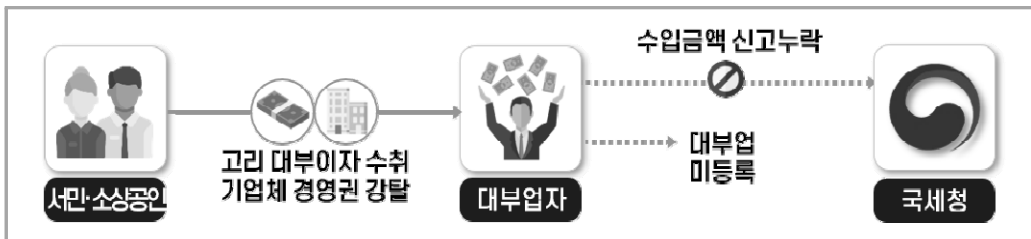
## ② 미술품 렌탈페이백 등 탈세 일삼은 코로나 호황 병·의원 및 가담 업체

- 두 번째 유형은 코로나19로 국가 전체가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비대면 진료 등으로 호황을 누리면서 갖가지 지능적 방법을 활용하여 페이백 탈세를 일삼은 코로나 호황 병·의원 및 탈세를 부추긴 가담 업체입니다.
  - 불법 PG사 및 미술품 대여업체의 탈세 컨설팅 영업에 적극 동조하여 높은 결제대행수수료, 고가 미술품 렌탈비는 경비로 처리하고, 이 중 일부는 원장 가족이 현금으로 페이백 수취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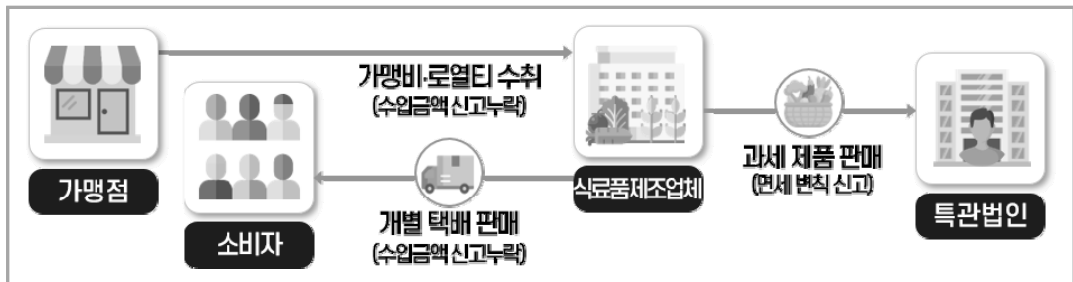
## ③ 자금줄이 막힌 서민에게 고리 이자를 뜯어간 불법 대부업자

- 세 번째 유형은 금리가 고공행진하고, 대출 벽이 높아지는 신용경색 상황에서 자금줄이 막힌 서민과 영세사업자의 절박함을 악용하여 탈세하는 불법 대부업자입니다.
  - 겉으로는 명망있는 지역유지로 활동하면서 고리 사채업으로 얻은 이자수입은 신고누락하거나, 자금난을 겪는 기업을 상대로 법정이자율을 훨씬 초과하는 고금리로 단기대여 후 담보로 잡은 기업체 주식으로 연체이자를 추심하여 경영권을 빼앗았습니다.



#### ④ 식료품 제조업체 등 고물가에 편승한 폭리 탈세자

- 네 번째 유형은 연이은 생활물가 상승으로 팍팍해진 살림살이에 힘겨워하는 서민들의 고통은 무시한 채 생활밀접 분야에서 고수익을 누리면서 탈루하는 식료품 제조유통업체, 건강기능식품업자, 인테리어업자입니다.
- 식료품 제조유통업체는 과세신고 대상인 포장식품을 면세로 둔갑시켜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고, SNS 광고로 인기를 얻자 소비자에게 개별택배 판매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으며, 가맹점으로부터 수취한 가맹비 등을 신고누락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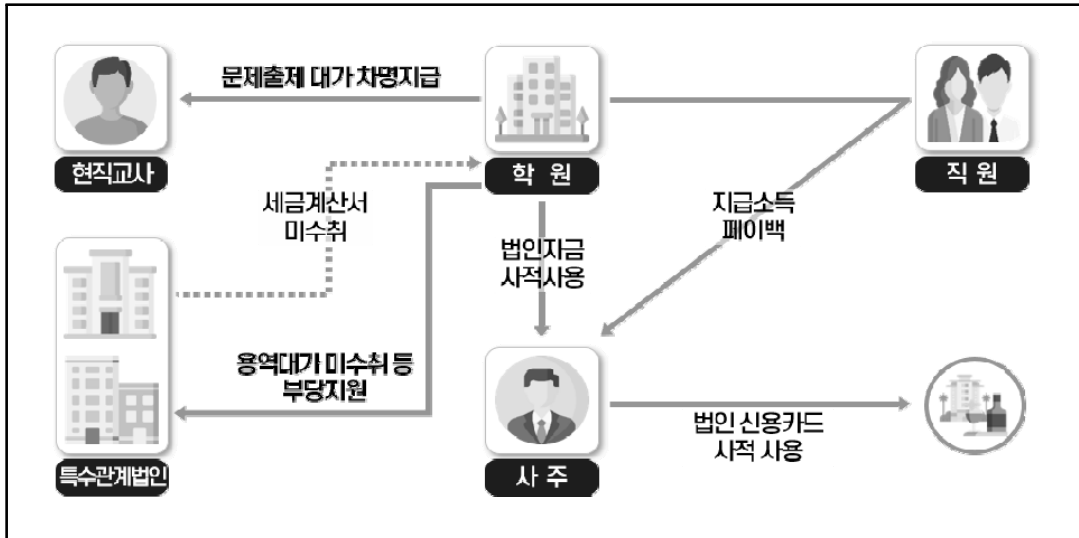
### 3 향후 추진방향

- 국세청은 지속되는 불안한 경제여건 속 많은 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중소납세자 조사 사전통지 기간 확대, 혁신 중소기업 정기조사 유예 등 기업들이 본연의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의 부담이 줄어들도록 앞으로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 그러나, 고수익을 취하면서도 서민생활에 부담을 주며 세금을 탈루하는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특히, 악의적이고 지능적인 탈루행위에 대해서는 금융거래 현장확인, 포렌식 등 모든 세무조사 수단을 활용하여 탈루 세금을 추징하고, 조세포탈 또는 세법질서 위반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습니다.
-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은 성실히 납세하신 국민들이 느끼는 상실감을 극복하고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서는 납세문화가 자리 잡는 길입니다.



## 붙임 1 - 민생밀집 분야 주요 조사사례

**조사사례1** 직원소득을페이백 받고, 법인자금을 사적 사용하였으며, 특수관계법인을 부당지  
**[학원]** 원하고, 현직교사 등의 탈세를 방조한 유명학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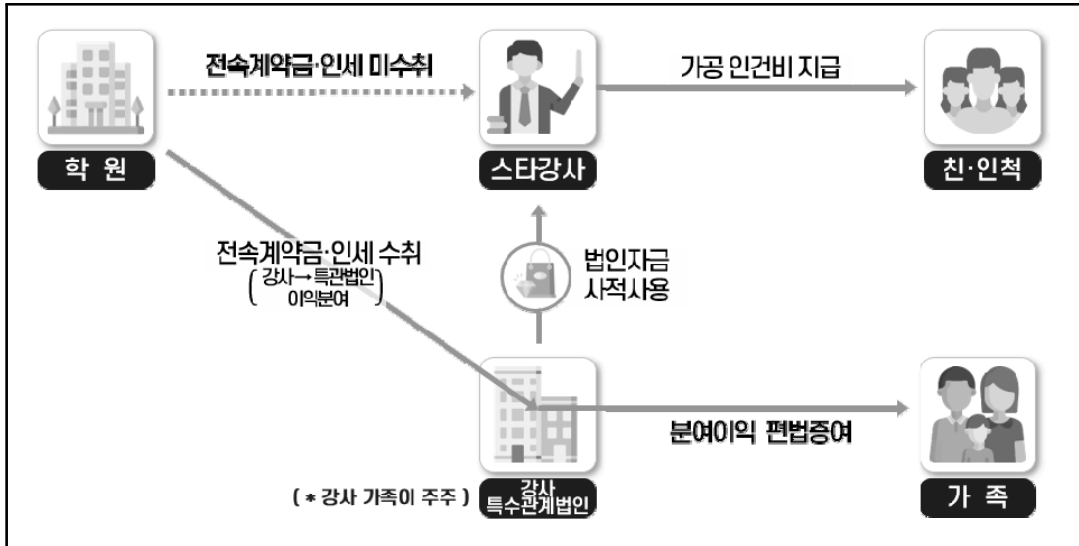
## □ 주요 조사내용

- 는 유명 입시학원으로서 직원에게 소득을 과다지급한 후 지급한 소득은 학원 경비처리하고, 일부는 사주가 페이백으로 수취
  - 업무와 무관한 사주 개인 주거비용 등을 법인경비로 처리하였으며, 법인 신용카드를 파인 다이닝, 특급호텔 등에 사적으로 사용
- 특수관계법인에 금전을 무상 제공하고 미회수하거나, 용역대가를 미수취하는 방법으로 특수관계법인을 부당지원하였으며,
- 특수관계법인에게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하여 특수관계법인의 수입금액 신고 누락을 방조하고,
  - 현직교사에게 지급할 문제출제 대가를 가족계좌 등으로 차명 지급하여 문제출제자의 개인 소득세 탈루에도 일조

## □ 주요 조사결과

⇒ 과다계상한 인건비 00억 원 적출 및 사적사용 비용 0억 원 부인 등

**조사사례2** 본인이 수취해야 할 인세 등을 가족이 주주인 특수관계법인에 귀속시켜 가족에  
[ 강 사 ] 게 우회 증여한 스타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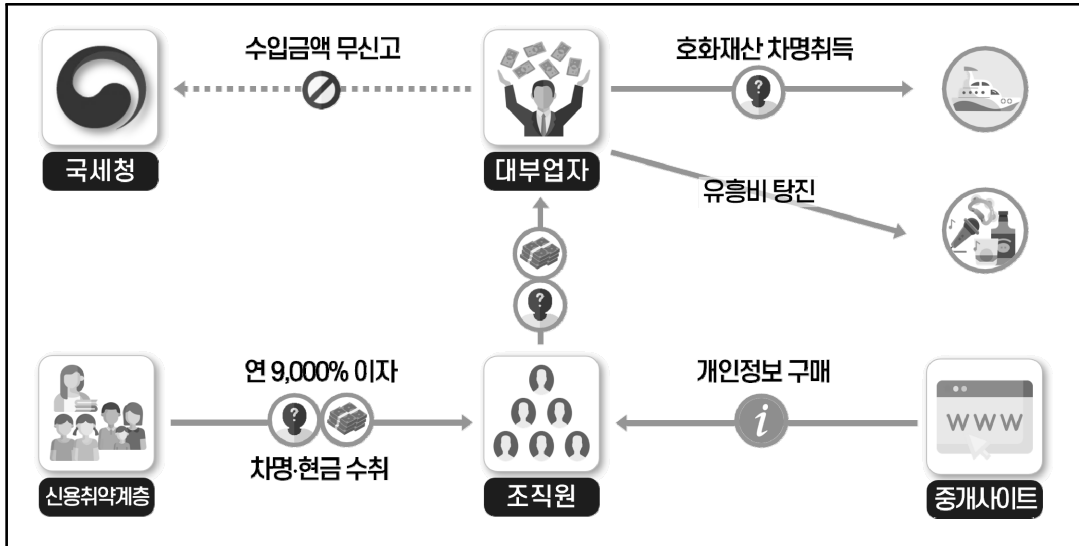


#### □ 주요 조사내용

- 스타강사 □□□는 가족이 주주인 특수관계법인을 설립하고 자신이 받아야 할 교재 저작권 관련 수익을 특수관계법인에 귀속시킴으로써 지분가치 상승을 통해 주주인 가족에게 우회·편법 증여
  - 또한, 개인이 수취하여야 할 전속계약금도 특수관계법인에 지급하도록 하여 개인의 수입금액 신고누락
- 실제 근무하지 않은 배우자 및 친·인척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인건비로 계상하여 소득세를 탈루하였으며,
- 특수관계법인이 고급 아파트를 임차하도록 하여 임차료는 법인비용으로 부당 계상하고, 스타강사 개인이 무상으로 사적 사용
  - 업무와 무관한 고가 명품 등 사치품 구입비를 법인비용으로 부당하게 손금 처리하여 법인세 탈루

#### □ 주요 조사결과

⇒ 가족이 우회적으로 받은 증여이익 0억 원 과세, 허위 인건비 부인 등

**조사사례3 기업형 미등록 대부업 조직을 운영하며 서민을 상대로****[대부업] 연 9,000%가 넘는 이자를 수취한 불법 대부업자**

## □ 주요 조사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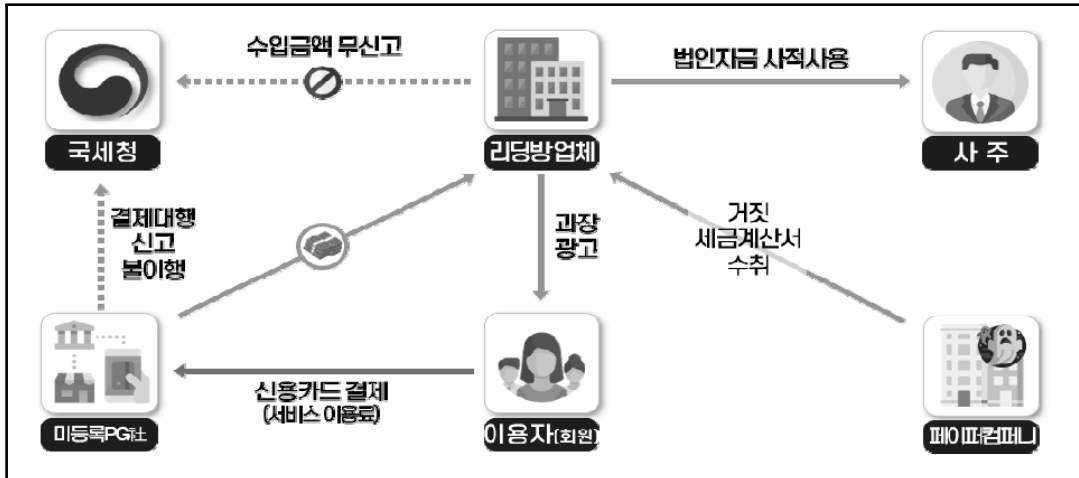
- □□□는 미등록 대부업 조직 △△△를 결성하여 기업형으로 운영하면서, 신용 취약계층을 상대로 최고 연 9,000%가 넘는 초고율의 이자를 수취
  - 대출 중개 웹사이트에서 제도권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거절된 신용 취약계층 정보를 구매하여 영업에 이용하였으며,
  - 전국적인 피라미드 구조의 조직을 통해 조직원이 수금한 이자를 다수의 차명계좌와 현금으로 우회 수취하여 수입금액을 전액 신고누락
- 차명으로 고급 아파트와 호화 요트를 구매하는 등 적극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유혹비로 하루에 수천만 원을 쓰는 등 사치 생활을 영위

## □ 주요 조사결과

⇒ 신고누락한 대부이자 수입금액 00억 원 적출하고, 조세포탈 행위에 대해 검찰 고발

## 붙임 2 - 이번 민생밀집 분야 세무조사 주요 착수사례

착수사례1	미등록 PG사를 이용하여 고액의 유료 회원비를 신고누락하고, 명품 구입비,
[주식리딩]	해외 호텔비를 법인비용 계상한 주식 리딩방 운영업자



### □ 주요 탈루혐의

- □□□는 "미공개정보주 제공", "000% 수익 미달성 시 환불 보장", "기관 출신 애널리스트", "수익 계좌 증명" 등 허위 광고를 통해 "유료 VIP 멤버십" 가입을 유도하고, 추후에는 터무니없는 핑계를 대며 환불을 회피하는 주식 리딩방 운영업자로,
  - 결제대행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는 미등록 PG社를 통해 고액의 유료 회원비를 결제하도록 하여 회원비 수입 00억원을 신고누락
- 직원 명의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여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근무하지 않은 친척에게 급여(0억 원)를 지급
- 또한, 결손이 발생한 사주 소유 특수관계법인의 전자기기 등 고정자산을 □□□ 법인 명의로 가공 계상하고 감가상각비를 부당 손금처리하였으며,
  - 사주가 거주하는 아파트 임차료와 관리비를 법인이 대신 납부하고, 명품 구입, 국내·외 고급호텔 숙박비 등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을 손금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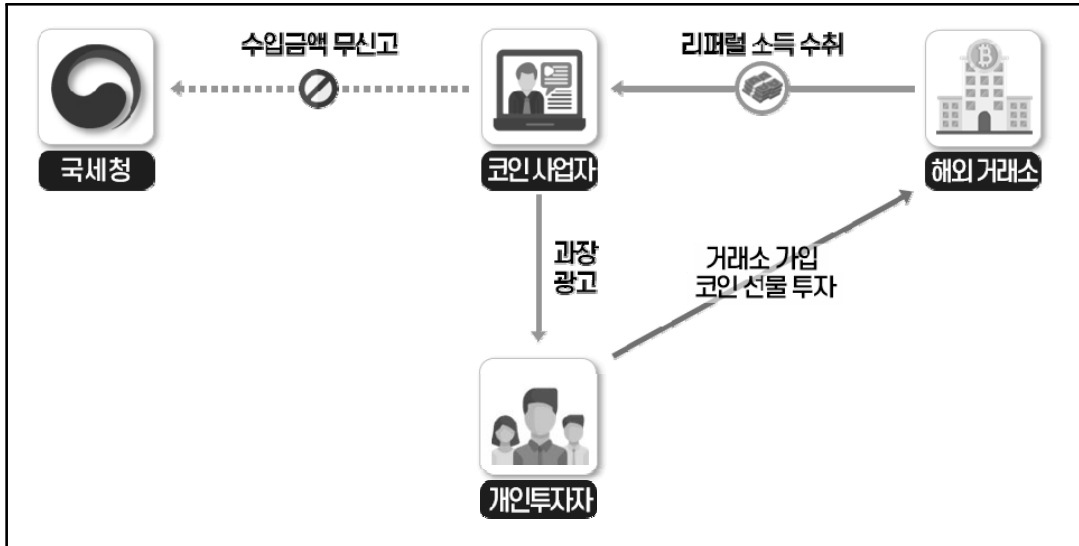
### □ 조사방향

⇒ 수입금액 누락 및 거짓세금계산서 수취 혐의 등 엄정 조사





<b>착수사례2</b> <b>[코인사업자]</b>	<b>개인방송을 통해 고위험 코인 선물 투자를 유도하고, 해외거래소에서 수취한 리퍼럴 소득을 신고누락한 코인 사업자</b>
--------------------------------	--



#### □ 주요 탈루혐의

- □□□는 인터넷 방송을 통해 국내거래소에서 지원하지 않는 고위험의 '코인 선물' 투자를 부추기며, 해외거래소 가입을 홍보하는 코인 사업자로,
  - 본인의 추천인 코드를 통해 해외거래소에 가입하면 수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개인투자자의 가입을 유도하고
  - 해외거래소로부터 가입알선 명목으로 개인투자자의 거래 수수료 일부를 수취(리퍼럴 소득)하였으나 이를 수입 신고누락
- 탈루한 소득을 은닉하기 위해 재산(부동산 등)을 취득하지 않고 고액의 월세, 여러 대의 고급 외제차를 리스하며 호화·사치 생활 영위

#### □ 조사방향

⇒ 추천인 수수료(리퍼럴 소득) 신고누락 혐의 등 엄정 조사